

부산출판사신간도서

부산에서 두산만든 책들여보기 BOOK



HARRY POTTER

부산을 맛보다

Made in BUSAN

06 부산에서 만든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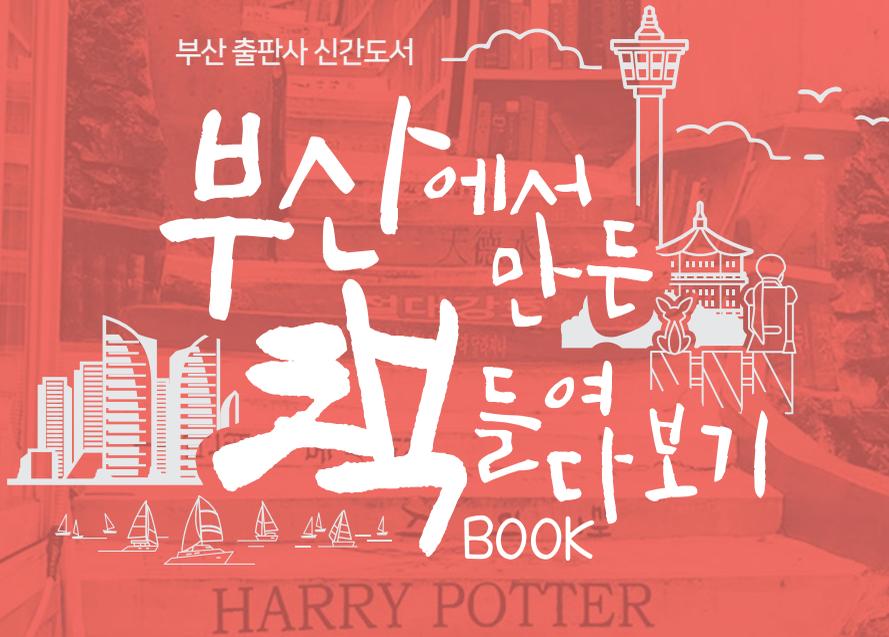
냥이의야옹	07
너나드리	08
두두	09
산지니	10
소요-YOU	19
시와 사상사	20
신생	21
스토리팜	23
비온후	26
빨간집	27
육일문화사	28
인디페이퍼	33
전망	34
제제	42
책떠냄열린시	43
한국인	48
해광출판사	50
해성	52
해열	57
해피북미디어	58
호밀밭	59



68 분야별 책 찾기

75 부산문화재단 출판시리즈 안내

Made in **BUSAN**



무거운 책

“서점 하는 나보다 많이 아시네.” 몇 년 전 영광도서 김윤환 사장이 내게 한 말이다. 차 마시는 자리였다. 영광도서 초창기 헌책방이 화제였다. 헌책이라면 나도 좀 안다고 떠벌리다가 너무 나가고 말았다. 내심 ‘아차!’ 싶던 차였다. 김 사장은 눈을 흘기는 대신 덕담으로 내 말을 끊어 주었다. 사람 좋다고 호가 난 김윤환 사장다웠다.

‘손에 들어보면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안다.’ 그때 내가 떠벌린 말이다. 왜 그런지 설명하느라 말이 길어졌다. 김 사장 덕담이 아니었으면 끊지도 못하고 한없이 늘어났으리라. 지금도 입이 간질댄다. 책이라면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떠벌리고 싶어서다. 말을 끊을 사람이 없으니 기회라면 기회다.

정말이다. 좋은 책은 들어보면 안다. 들어보고 무거운 책이면 일단은 양서다. 내용이 무거운 책을 말하는가 싶겠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책이 가진 실제 무게를 말한다. 새 책이든 헌책이든 무거운 책이 일단은 무조건 좋다. 나는 그렇게 한다.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가 같은 제목이 여러 권 있으면 들어보고 가장 무거운 책을 산다.

들어보고 무거운 책! 나름대로 익힌 이 비법은 연륜이 꽤 깊다. 중학교 다닐 때 연수했고 고교생이 되어서 완전히 이수했다. 내가 다닌 중학교와 고교 중간쯤에 있던 보수동 헌책방이 실습장이었다. 덕분에 학창시절 참 뽀질나게 거길 다녔다. 중학생일 때는 월말시험이나 기말시험 마치는 날 거의 갔고 고교생일 때는 한 주일 한번은 갔지 싶다.

중학생일 때는 연수 중이어서 약간의 준비가 필요했다. 교과서 수록작가의 약력에 언급되는 책 제목을 따로 적어두었다가 그런 책이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샀다. 양주동 <여요전주>니 이희승 <딸깍발이>니 제목으로 접하던 책은 책이

책꽂이에 하나하나 늘어나는 기쁨은 컸다. 한 달 용돈을 쓰지 않고서 모으는 고통보다 몇 곱절은 컸다.

고교생이 되면서는 요령이 늘었다. 책을 싸게 사는 요령과 좋은 책을 고르는 요령이었다. 책방에 들어가면 우선은 서가에 꽂힌 책을 쪽 둘러봤다. 탐나는 책이 여러 권 있다 싶으면 책방 주인에게 돈을 미리 얼마 주었다. 예를 들면 1만 원을 미리 주고 이 돈만치 책을 골라 가겠다는 일종의 선납구매였다. 내가 고른 책은 미리 준 돈을 늘 넘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주인은 “오냐! 오냐!” 귀엽게 봐 주었다. 뽀질나게 다녀서 책방 주인과 트고 지냈기에 가능했다.

그다음 요령이 책 들어보기였다. 들어봐서 무거우면 좋은 책이고 가벼우면 ‘땡’이었다. 책 정보가 넘치는 요즘과는 달리 그 시절에는 그게 ‘신의 한 수’였다. 내가 고교생이던 1970년대는 소위 ‘해적판’이 넘쳤다. 한 책이 뜨면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막 찍어 냈다. 그런 책은 하나같이 가벼웠다. 경상도 말로 ‘해깝다, 해깝다’였다. 지질 떨어지는 가벼운 종이를 쓴 탓이었다. 그래서 책 두께는 비슷해도 들어보면 무게에 차이가 났다.

<부산에서 만든 책>. 부산문화재단이 마음을 내어 몇 년째 해오는 책 소개 시리즈다. 부산 출판사가 낸 책 중에서 괜찮다 싶은 책은 여기 다 있고 부산 작가가 쓴 책 중에서 괜찮다 싶은 책은 여기 다 있다. 들어보면 하나같이 무거운 책이다. 하나같이 무거워서 들어보고 재어보고 할 것도 없다. 그냥 눈 딱 감고 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책, 그 책이 여기 <부산에서 만든 책>이다.

동길산 (시인)



부산에서 만든 책



낭이의야옹



너나드리



두두



산지니



소요-YOU



시와 사상사



신생



스토리팜



비운후



빨간집



육일문화사



인디페이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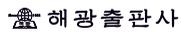
제제



채퍼넬열린시



한국인



해광출판사



해성



해열



해피북미디어



호밀밭

낭이의야옹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42, 801호 <부산, 머물다>
010-6409-2040
nyaong2040@naver.com



모든 동물들이 각자의 소리로 이야기하듯 사람은 사람다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며 입으로 제대로 나를 표현하는 세상을 꿈꾸는 '낭이의야옹'입니다. 부산지역의 이야기와 부산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출간하는 독립출판사입니다.

요기 올래? 축제의 영도다리

영도다리로 가야만(?) 하는 두 주인공의 로드 에세이집. 짧은 글과 간략한 선 그림으로 담백한 정취를 풍기며, 영도다리에서 만난 그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해진다.

김나영
2019. 03. 26.
92쪽 / 7,000원

수 수영, 머물다

지역에서 보다 즐겁게 살기 위해 부산을 공부하며 여행 다니다. 잠시 또는 오래도록 머문 시선을 노트 한 권에 담다. 수영구를 담은 부산의 세 번째 이야기.

김나영, 김가이, 양윤경
2020. 04. 30.
32쪽 / 5,000원



너나드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381번길 99(다송) 101동 1406호
051-200-8790
www.dahana.co.kr | simple1@hanmail.net



도서출판 너나드리는 국내 유일 통일 북한 전문출판사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너나 하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 북한 분야 책을 통해 하나의 길을 만들어 간다. 우리의 일상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 교양서를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수익금은 관련도서 연구 출판 및 통일기금으로 활용한다.

두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294번길 24, B1F
070-7701-4675
doodoobooks@naver.com



'두두'는 '아래로부터의 콘텐츠'를 표방하며 2018년 4월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서 출발한 출판사입니다. 영어단어 'doo-doo'는 아기의 우가를 뜻합니다. 것처럼 자신만의 경험과 고민, 상처와 생각을 여린 오장육부로 소화시켜 세상에 처음 내놓으려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그들만의 평양

이 책은 북중경경에서 바라본 북녘 사람들의 가을과 겨울을 찍고 기록했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살아가는' 평양 시민이 아닌,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내는' 북한인민들의 역센 일상을 담았다. 강 너머 망원렌즈로 보이는 북녘의 모습은 누군가의 의도로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북중경경 지역은 바로 북한인민들의 삶이자 현실 그 자체의 잔상을 품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두만강 칼바람은 마치 날선 분단의 칼날처럼 뺨속을 파고들었다. 손마디가 떨어질 것 같은 혹독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덤덤히 또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 길 위에서 마주한 북녘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싶었다. 그들을 사진이라도 담는 건 진실에서 눈 돌리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이자 고백이다.

강동완
2019. 04. 15.
272쪽 / 29,000원



북한담배 프로파간다와 브랜드의 변주곡

국내 최초 북한담배 200여 종의 브랜드(색상, 디자인, 서체, 콘텐츠 등)와 정치 선전에 관한 탐구.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자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북한사회 깊숙이 자리한 자본주의 행위 양식은 이미 북한사회 변화의 주요한 동력이다. 상표에 정치사상을 담지만, 동시에 소비자를 의식해 디자인과 색상, 서체, 포장지의 형태 등 브랜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북한 당국의 이중적 고민이 북한담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북한담배에 감추어진 선전(propaganda)과 또 다른 선전(advertise)이 어떤 변주곡으로 울리는지 함께 들어보자. 북한사회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창(窓)으로 말이다.

강동완
2019. 09. 30.
288쪽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

'충성의 외화벌이'라 불리는 북한노동자

이 책은 '당과 조국을 위한 충성자금'으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의 이야기다. 1부 <삶을 보다>는 그들이 타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당과 조국을 위한 충성자금은 어떤 건지, 어느 건설현장에서 일했는지 등을 다룬다. 2부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는 현지에서 직접 만난 북한노동자들과의 수차례 인터뷰 내용을 오롯이 담았다. 저마다의 사연들은 시린 눈물을 닦아 낼 만큼 여리고 아픈 흔적들이었다. 러시아 연해주 그들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부단히도 걷고 달렸다.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에서 뺨속을 에는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충성의 외화벌이'라는 이름으로 청춘을 잃어가는 그들의 아픈 조각들을 찾아서...

강동완
2019. 12. 22.
480쪽 / 29,000원



더 나은 진보는 불가능할까

『더 나은 진보는 불가능할까』는 우리 사회 진보담론의 주류를 형성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그 밖의 다양한 급진주의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 쟁점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쓴 글의 모음이다. 필자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급진주의자들이 서로 교통하고 영향 받으며 공진화하기를 희망한다.

남종석
2019. 05. 25.
296쪽 / 15,000원



따로 쓰게 된 방

강남주의 첫 단편소설집 『따로 쓰게 된 방』에는 모두 아홉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일관되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노년 문제를 담담하고도 단단한 시선으로 응시한다. 현실 쓴 글의 모음이다. 필자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급진주의자들이 서로 교통하고 영향 받으며 공진화하기를 희망한다.

강남주
2019. 09. 27.
240쪽 / 13,800원



프롬 윤영옥

『프롬 윤영옥』에는 딸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영옥 여사,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영,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해 나가는 워킹맘 서진까지 세 여성이 등장한다.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육아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세 여성은 '육아'를 매개로 서로 연결된다. 『프롬 윤영옥』에 등장하는 세 여성의 이야기는 모성애로 포장돼 낭만적으로만 바라보는 육아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개인과 '엄마'라는 정체성 사이의 혼란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고민을 내밀한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김정
2019. 10. 13.
148쪽 / 13,800원



산지니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약자지결한 세상살이가 녹아 있는 책. 요지경인 세상에 경악을 금치 못할 때도,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 수많은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지만, 저자는 사람들에게 아직 삶은 아름답고,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전한다.

이병철
2019. 01. 14.
214쪽 / 14,000원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홍콩 산책

홍콩의 정체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류영하 교수의 인문 여행 에세이집. 30년간 홍콩을 연구하며, 살며, 여행하며 쓴 글을 담았다. 홍콩에 대한 전문지식을 집대성했지만 쉽게 풀어 썼다. 그가 본 홍콩의 모습을 담은 스무 가지 글을 읽다 보면, 저마다 다른 색을 지닌 홍콩의 면면에 빠져든다.

류영하
2019. 01. 15.
215쪽 / 15,000원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동아시아 엑스포의 역사

1851년 런던 박람회부터 2012년 여수 박람회까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박람회의 변천사를 문명과 과학의 박람회, 오락과 소비주의의 박람회, 이데올로기의 박람회, 환경생태의 박람회 시대로 나눠 다룬다. 이 거대한 이벤트를 통해 시대 상황을 들여다보고 박람회를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를 비춰본다.

하세봉
2019. 02. 11.
480쪽 / 35,000원

2019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오래된 매를 뜻하는 산지니처럼 지속 가능한 출판을 꿈꾸는 출판사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출판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자와 함께 독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바람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인문사회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500여 종의 책을 출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출판으로 이어지는 데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정부수립 독립운동에는 무장투쟁만 있지 않았다. 외교로 항일투쟁하며 조선독립을 알린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는 오랫동안 역사에 묻혀 있었다. 숨겨진 서영해의 삶과 사상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그가 남긴 글로 독립에 대한 열망을 그려본다.

정상천
2019. 02. 28.
316쪽 / 16,000원

서울도서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강의 선정도서, 말레이시아판 출간 예정

소비에트 러시아의 신체문화와 스포츠

'스포츠'라는 소재를 활용해 1920년대 이후 소련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도서. 저자는 스포츠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살피며, 1920년대와 스탈린 시대, 냉전 시대로 이어지는 러시아사를 들여다본다.

박원용
2019. 02. 28.
318쪽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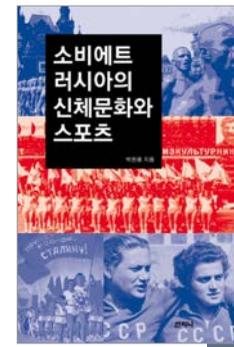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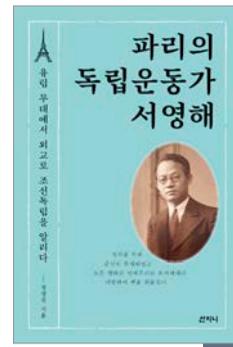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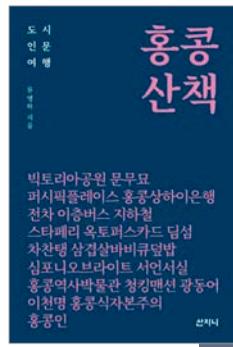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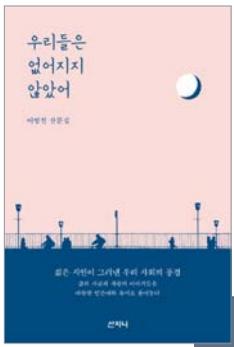
201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해상화열전 上/下

19세기 말 중국의 상하이 조계지 화류계를 다룬 중국 최초의 창작 연재소설이자 만청 시기의 대표 작가 한방경이 남긴 마지막 소설. 1892년 상하이에서 발행된 중국 최초 문예 잡지에 연재된 이 소설은 당시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중국 소설사가 정리되는 동안, 문체와 전개 방식, 내용적 측면에서 현대성을 선취한 독보적인 작품으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한방경 지음 / 김영옥 옮김
2019. 04. 10.
519쪽, 550쪽 / 각 25,000원

2019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시로부터

30년 넘는 세월을 왕성하게 활동해온 시인이 시의 대변자가 되어 시와 시인에 대해, 시 쓰기에 대해, 시 과잉과 시 펍백에 대해, 시를 안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가감 없이 써 내려간 책이다. 지금껏 밥벌이와 생의 원동력이었던 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며 시인만의 시론을 펼친다.

최영철
2019. 04. 25.
224쪽 / 14,000원

일기 여행

여성이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서 삶을 기록하는 여정이 담겨 있다. 저자는 <여성 일기 연구회>를 창립하고 운영한 경험과 출판된 일기, 자서전을 읽으며 일기 쓰기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기록했다.

말린 쉬위 지음 / 김창호 옮김
2019. 05. 28.
500쪽 / 20,000원

2019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나뭇잎 칼

고향마을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가족과 도시라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 자연을 품은 넉넉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무장된 도시에서 저자가 전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이야기는 딱딱한 마음을 절로 넉넉해지게 한다.

양민주
2019. 05. 31.
200쪽 / 15,000원



그림 슬리퍼

15년 동안 범죄 기자로서 그림 슬리퍼의 수사 과정을 추적해온 크리스틴이 수사관 인터뷰, 유일하게 살아남은 피해자 탐방 기사 및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모아 담아낸 책. 정의로 가는 길고 험난한 길을 생생하고 정확히 포착하여 담아낸, 우리 시대의 가장 놀라운 범죄 르포집이다.

크리스틴 펠리섹 지음 / 이나경 옮김
2019. 06. 19.
456쪽 / 18,000원

2019 서울국제도서전
여름 첫 책 선정도서

데린쿠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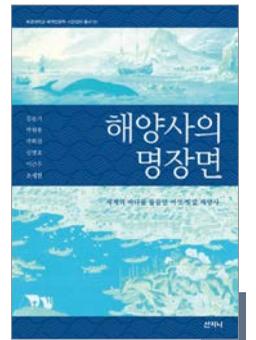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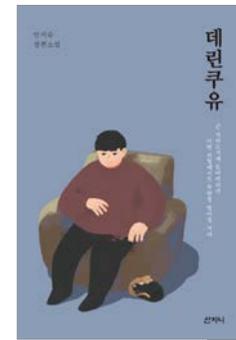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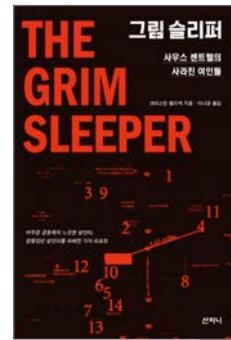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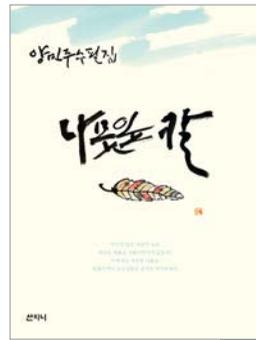
세상에 일조하고픈 마음은 조금도 없는 백수 민현수. 이런 현수에게 세라는 꺼림칙한 아르바이트를 제안한다. 인터넷상에서 송찬우를 괴롭혀달라는 것인데 현수는 송찬우의 삶을 파고들면서 자신의 삶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퍼즐을 맞춰나간다.

안지숙
2019. 06. 27.
264쪽 / 15,000원

해양사의 명장면

부경대학교 사학과 여섯 명의 교수는 '해양'이라는 주제 아래 관련 분야 최전선에서 꾸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책에는 서양 근현대사에서 '해적'의 역할부터 조선 시대 '조선 통신사'를 통한 문화교류 양상까지, 저자 각각의 시선으로 바라본 해양에 대한 다양한 역사와 해석이 담겨 있다.

김문기, 박원용, 박화진, 신명호, 이근우, 조세현 지음
2019. 07. 25.
295쪽 / 20,000원





산지니

루카치가 읽은 솔제니친

1970년 11월 옛 서독의 루흐터하트 출판사에서 발간한 『솔제니친』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루카치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유물론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론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이론적 작업을 시도했는데, 이 책은 그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문학비평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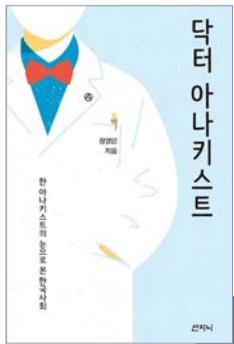
게오르크 루카치 지음 / 김경식 옮김
2019. 07. 26.
158쪽 / 18,000원



닥터 아나키스트

저자는 아나키스트를 '기존의 가치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을 부정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책에서는 이러한 아나키스트적 시선으로 의료계, 한국사회, 대학사회의 문제를 바라본다. 오랜 시간 몸담은 의료계와 대학사회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치부까지도 솔직하게 내보인다.

정영인
2019. 08. 05.
248쪽 / 15,000원



오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

예술과 철학에서 찾은 삶의 무게,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애정, 고통과 불안 속에 버티는 삶의 가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의미를 저자의 단단한 사유와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다. 흔들리고 고민하며 불안을 안은 채,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곧 다가올 오후도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다독인다.

이국환
2019. 09. 10.
232쪽 / 15,000원

2020년 원복원부산 일반 부문 선정도서, 2019년 12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팔팔 끊고 나서 4분간

정우련의 두 번째 소설집. 전작 『빈집』에서 유년 시절 가족과 집을 소재로 가족 균열의 모습을 담담히 드러냈던 작가는 이제 시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각 소설에 단단한 깊이를 더한다. 소설 속에서 화자의 시선은 모두 팔팔 끊거나, 끊었거나, 끊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다.

정우련
2019. 09. 30.
240쪽 / 15,000원



폐허의 푸른빛

여러 권의 비평서를 출간하며 '지방·지역·세계'라는 중층적 인식 아래 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온 구모룡 평론가의 새로운 평론집이다. 저자는 다양한 평문과 비평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학 지향에 대해 살펴왔다. 이번 평론집에서는 21세기 한국문학과 지역문학을 이해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구모룡
2019. 09. 30.
472쪽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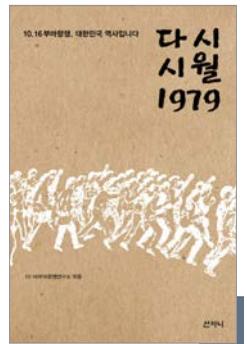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다시 시월 1979

부마민주항쟁의 새로운 증언과 의미를 담은 책으로 부마민주항쟁과 '그날' 이후 40주년을 기록했다. 부마항쟁을 기억하는 주역들의 인터뷰와 함께 그 날을 회고하는 10명의 솔직한 목소리가 담겼다. 부마민주항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과제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10·16부마항쟁연구소 엮음
2019. 10. 15.
382쪽 / 18,000원



자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

전 세계적으로 '로컬의 재발견'이 진행 중이다. 저자는 지방과 지역이 '로컬'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와 '분권'을 제시한다. 또한 로컬을 '지금 여기'로 정의하며, 저자에게 '지금 여기'인 부산과 기장의 미학과, 고향과 삶터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임성원
2019. 11. 08.
272쪽 / 20,000원

저는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초등학교 도서관의 계약직 사서로 근무한 저자가 6년 동안 경험한 도서관의 노동 현장과 학교와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적은 에세이집. 이 글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조건에서 일하며, 도서관 노동 현장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였다.

석정연
2019. 12. 20.
244쪽 / 15,000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나눔위원회 2020년 2월의 추천도서

패션, 음악영화를 노래하다

'보헤미안 랍소디'의 프레디 머큐리, '라라랜드'의 미아와 세바스찬. 우리는 그들을 "음악과 패션"으로 기억한다. 책에서는 스타일의 교과서 역할을 해 온 영화, 그중에서도 음악영화에서 나타나는 뮤지션의 패션을 한눈에 살펴본다. 대중문화의 세 축인 음악, 패션, 영화가 서로에게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며, 대중문화에 녹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기회가 된다.

진경옥
2019. 12. 24.
244쪽 / 20,000원

2020 학교도서관저널 3월의 책



고종, 근대 지식을 읽다

집옥재에 소장되었던 12종의 중국 서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하고, 고종이 왜 이 책들을 구입했으며, 무엇을 읽어냈는가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고종의 개화사상을 연구하는 데 구체적 단서를 제공한다.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고종의 장서를 통해 그의 독서 편력을 상상하고 개화를 향한 꿈을 엿볼 수 있다.

윤지양
2020. 02. 11.
333쪽 / 25,000원



마녀 바라쿠다의 정원

꼬마 마법사 메이린의 모험을 다룬 판타지 창작동화. 동백꽃 마녀 가문에서 태어난 호기심 많은 마녀 메이린과 마법사 집안의 아이들 봉수와 두는 어른들의 간섭을 피해 다양성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며 성장해 간다.

이석용
2020. 03. 25.
184쪽 / 13,000원

2015 한국안데르센상 대상 수상작품



중국문화요의

량수밍이 "과거의 중국을 인식하여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자."라는 구호 아래 사회문제(중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사상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량수밍 자신에 대한 평가에 가장 적합한 책이다. 인류 사회와 문화에서 중국 사회와 문화가 지니는 의의를 중국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해명하고 있다.

량수밍 지음 / 강중기 옮김
2020. 03. 27.
552쪽 / 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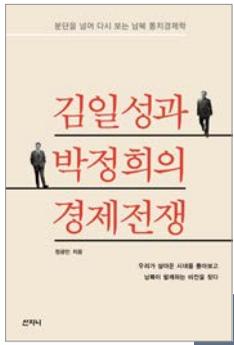


산지니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분단시대의 체제 경쟁을 상징하는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에 관한 책. 민생개발 경쟁으로 출발한 양자의 경제전은 국방개발 경쟁에 이른다. 이에 저자는 서로를 향한 총력전체제를 국방국가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 경제전이 남한과 북한의 체제와 민생 복지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다.

정광민
2020. 04. 13.
416쪽 / 25,000원



소요-You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37번길 11
070-7716-9249
페이스북: 소요-You-658276371038552
pyh5619@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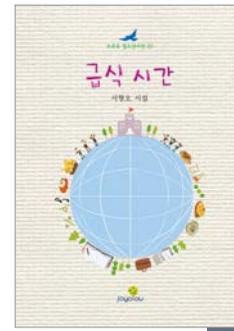
소요-You는 '활활 날아 자유롭게 노닐다'라는 장자의 '逍遙遊'로 인간이 유희할 수 있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꿈꿉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내기보다 의미 있는 책을 내고자 합니다. 1인 출판사이며, 직접 기획에서, 디자인, 편집, 인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존이라는 모험』, 2016년 『시민의제사전 2016』, 2018년 『마개 없는 것, 비가 오다』로 부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출판 우수도서 지원사업'에 세 번 선정되었습니다.

급식 시간

서형오의 『급식 시간』은 청소년 시의 세계에 작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시는 현재의 청소년 일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형상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세계를 유쾌하고 발랄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과거의 청소년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현재의 청소년들과 대비하면서 시대에 따라 변하는 청소년의 삶을 조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시집은 이런 자리에서 빛나는 시집이다. 그의 시집은 지금 여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현실을 촘촘하게 살피면서 그 청소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이 놓여 있다.

서형오
2019. 05. 30.
160쪽 / 10,000원

부산 원복원 청소년 부문 후보



시민의제사전 2020

한국에서는 기초예술화과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통폐합되거나 폐과되고, 문화와 예술의 성과는 시장의 정량적 평가의 관성에 지속적으로 굴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의식을 가지고 작업하려는 작가들의 생존이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의 문화공론장은 이처럼 끊임없이 붉은 등을 점멸하면서 공공성의 침몰을 막으려 했다. 이 절박한 신호는 여전히 점멸되고 있다. 이 책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발언들은 그 점멸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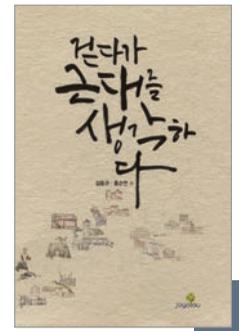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편저
2020. 02. 06.
208쪽 / 14,000원



걷다가 근대를 생각하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이 지역, 근대, 상처를 키워드로 하여 도시를 산책하였다. 우리는 스스로 도시 부산의 어둠을 선택함으로써 어긋난 길을 걸었고, 그 길을 걸으면서 도시 부산의 정체를 보는 동시대인이자 주체가 되고 싶었다. 부산의 근대를 걷다가 상처의 결을 보았고, 이를 어루만지게 되어 생긴 명저다. 마치 거대한 하드웨어처럼 도시는 도시민의 삶과 생활을 곳곳에 새겨 두었을 것이다. 원해서 새긴 것이든, 원하지 않는데 새겨진 것이든, 도시를 산책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우고 덮어쓴 상처를 더듬어 가는 회상의 작업이자 치유와 성찰의 작업이다.

김동규, 홍순연
2020. 03. 02.
160쪽 / 15,000원



시와사상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91, 경동빌딩 2층
051-512-4142
http://sisasang94.blog.me
goldkiss@unitel.co.kr

시와사상사

『시와사상사』는 2005년 7월 18일에 출판사를 신고하였다. 업선된 유능한 시인들의 시집, 사회집 발간과 평론가들의 문학이론서와 함께 수필가들의 수필집 등의 문학 관련 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출판사이다. 특히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시 전문 계간지 『시와사상』의 발간을 통해 한국 시문학 발전과 부산지역 시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생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35번길 5, 401호
연락처 : 070-4025-2880
www.sinsaeng.co.kr
lapori01@hanmail.net

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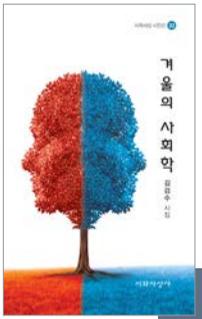
2003년 설립되었으며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 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신생인문학연구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그 성과물이 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생시선>, <신생비평선>, <신생학술총서>, <신생인문총서> 등의 책을 발간하고 있다.

겨울의 사회학

시집 『겨울의 사회학』에 수록된 시들은 도시 삶의 인간 파괴적인 현상들을 시의 질료로 한다. 시인은 이미지스트로서의 언어운용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의 시들은 현실과 몽상의 접점에서 발화한다. 그래서 시는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이다. 또한 그의 시의 언어는 상당한 역동성을 지닌다. 시공을 초월한 이질적인 언어들의 결합은 환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상을 현상으로만 한정시키지 않는 역동성이 있다. 현대의 삶이 안고 있는 모순을 담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 초월적인 의지의 힘이 더 강하다.

김검수
2019. 09. 30.
112쪽 / 9,000원

2019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대상



누가 방안의 코끼리를 꺼낼까

이 책은 생명위기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를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인류와 생명을 위협하는 색다른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과 적응, 대처법 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생태철학서이다. 이 책의 제목에서 등장하는 방안의 코끼리는 누구도 진실을 말하기 꺼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읽는 동안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지만, 우리가 대면하고 이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할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이 책의 내용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생명, 생태, 생활이라는 삼원 다이어그램을 꿰뚫는 주체성 생산의 가능성이다. 즉, 그 일을 해낼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이다.

신승철
2019. 03. 27.
319쪽 / 15,000원



지상에서 가장 먼 것들

김인수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시집의 전반부와 중반부에는 지리적 공간으로 바다와 계절적 시간으로 겨울이, 후반부에는 시인의 정신적 가치로서 불교 제재의 시들이 밀도 있게 배치되어 있다. 바다는 시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생활환경과 관련이 깊은 소재다. 유년기의 바다 체험이 내면화되고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바다가 시의 제재로 친숙하게 들어오는 것이다. 바다 관련 시편에서는 특히 파도의 움직임과 바닷가 지형, 주변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불교적인 정취를 느끼게 하는 시들이 많은데, 절 이름을 제목으로 가져오거나 일상 생활 경험을 시로 진술하면서도 불교 용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시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김인수
2019. 04. 05.
126쪽 / 10,000원

제5회 경북작가상 수상 시집



미륵을 묻다

김형로 시인의 첫 시집이다. 김형로 시인의 시는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성찰적 시간을 통하여 현재의 삶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서정시의 근본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족 혹은 일상에 대한 추억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것이 단순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픈 말이 미래적 방향으로 심층 내재되어 있어 현재와 소통하는 기억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속에서 현재적 성찰의 의미를 길어 올리고 있는 시인의 시인(詩眼)이 깊고 예리하다. 시집에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와 웅숭깊은 사랑이 담긴 시편들로 가득하다.

김형로
2019. 09. 27.
136쪽 / 10,000원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2020 원북원부산 후보도서



시간 이야기

황애숙 시인의 첫 시집이다. 시인은 하이데거를 전공한 철학자이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해 왔고 또한 그 세월만큼 시를 써온 시인이다. 홀로 묵혀 두고 삭혀 둔 시편들이다. 시인은 생애를 털어 엮어낸 자신의 시편들을 '시간 이야기'라 명명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해설을 맡은 시인이자 철학자 이성히는 그 시간을 회귀하는 시간이자 프랙탈적 시간이라고 말한다. 순간 속에 과거와 미래가 서로 회귀하고, 하나의 운명으로 과거와 미래가 오롯이 프랙탈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잎사귀에 한 그루 나무의 운명이 오롯이 담겨 있듯이 말이다. 서정시이면서 깊고 무궁한 철학적 세계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한 권의 시집이다.

황애숙
2019. 11. 25.
142쪽 / 10,000원



벽이 먹어버린 사내

김정희 시인의 첫 시집이다. 시인은 타락한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것의 모순을 비판하는 가운데 그리운 것을 찾는 주문으로서 시의 형식을 발견하고 있다. 가히 '벽의 상상력'이라 이름붙일 만한 당대적 삶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보여준다. 거대한 자본주의적 체제 안에서 인간이 생명과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의 기계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을 이미지로 드러낸다. 의지와 꿈을 상실하고 익명화되어 가는 존재와 소외된 삶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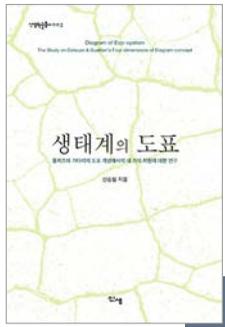
김정희
2019. 12. 30.
109쪽 / 10,000원



생태계의 도표

이 책은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도표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이론학술서이다. 여기서 도표는 지도제작 혹은 지도화의 방법론으로, 들뢰즈와 가타리가 네트워크와 공동체, 생태계 등에서의 연결접속, 이행, 횡단, 변이 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핵심개념이다. 지도제작으로서의 도표 개념은 커뮤니티 맵핑 개념으로 소개되면서, 공동체, 생태계, 네트워크의 구도를 드러내는 이론적 연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도표 개념을 더 급진적으로 사용한다면, 현재 직면한 "거대한 문제 설정으로서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떤 입구를 발견하고 출구를 발명하여 지도를 그릴 것인가?"의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뾰족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신승철
2020. 02. 17.
300쪽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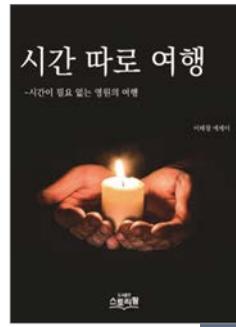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41-1, 2층
051-253-0001
www.storyfarmbook.com
chojunh@naver.com

'도서출판 스토리팜'은 문학도서 출간 출판사로 시, 소설, 에세이 등 문학 교양 도서를 펴내고 있다. 지역 작가를 전국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출간도서는 지역 서점은 물론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등 여러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부산의 문화와 함께한다는 의지로 대부분의 도서를 부산에서 편집, 인쇄, 출판하여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간 따로 여행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병마를 이겨내고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자의 희망을 담은 글이다. '준비', '운명적', '꿈꾸는 자', '진정 보람찬' 등 글 제목만 모아보아도 저자가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삶의 미래를 적어내고 있다. 병마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며 한 글자씩 써내려간 새로운 도전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짧은 글 속에서 작지 않은 내일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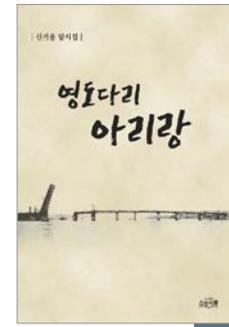
이태창
2019. 01. 05.
143쪽 / 13,000원



영도다리 아리랑

시집 『영도다리 아리랑』은 담시집(譚詩集)이다. 즉, 이야기 시 모음집이다. 첫 번째 이야기 『영도다리 아리랑』은 시조, 사설시조, 판소리 가락으로 창작한 담시이다. 두 번째 이야기 『질경이와 호랑이』는 부분적으로 시적 미학을 갖추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단편소설에 가깝다. 세 번째 이야기 『산복도로 아리랑』, 네 번째 이야기 『푸른 옷 아리랑』, 다섯 번째 이야기 『해군의 신화, 승전보를 깨워라』, 여섯 번째 이야기 『막걸리 아리랑』 등은 '단편 담시 모음' 형식으로 여러 편을 엮었다. 이들을 한 편씩 분리해 보면 분리한 대로 한 편의 시(자유시,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등)이고, 묶음으로 연결해 보면 화자와 시집이 다양하지만 한 편의 담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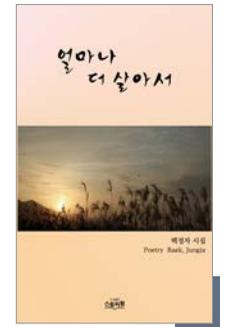
신기용
2019. 03. 05.
137쪽 / 13,000원



얼마나 더 살아서

86세 소녀 할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시집이다. 생활 속 행복에서 보이는 기쁨과 가족의 사랑, 사계절의 아름다움 등을 할머니의 시적 감성으로 소녀처럼 풋풋하게 풀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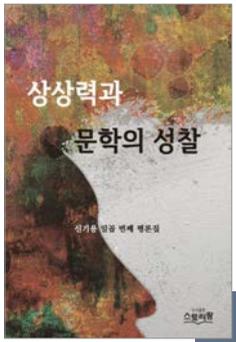
백정자
2019. 03. 15.
108쪽 / 11,000원



상상력과 문학의 성찰

문학평론가 신기용은 아동문학가, 시인, 수필가이기도 하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일곱 번째 문학평론집 『상상력과 문학의 성찰』은 신화적 상상력을 비롯한 상상력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평문, 상상력의 한계인 표절 문제를 비롯한 문단의 병폐와 문학의 성찰에 대한 평문 등으로 엮었다. 저자는 특히 시인(문인)들에게 '창조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강조의 말처럼 이번 문학평론집 『상상력과 문학의 성찰』은 시인이나 문인, 문학 지망생들의 성찰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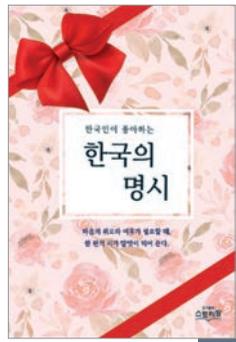
신기용
2019. 06. 05.
366쪽 / 15,000원



한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의 명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명시를 골라 엮은 책이다. 김소월, 이육사, 정지용, 윤동주, 백석, 김영랑, 한용운, 이상, 이상화, 임화, 이육악, 김동환 등의 시를 실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진 지금,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여행가방 속에서 늘 함께 하던 책이 이제는 전자제품이 차지한 시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몇 번을 곱씹으며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느꼈던 시구는 오랫동안 절망이 쌓였던 우리의 마음에 한때나마 여유의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그 마음의 여유를 이제 조금이나마 느껴보았으면 한다. 짧은 시에서 절망을 이겨내고 위로를 건네주는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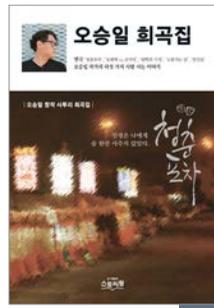
신기용
2019. 08. 15.
192쪽 / 14,000원



오승일 희곡집

시인이자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인 오승일의 창작 희곡집이다. 저자인 오승일 작가는 부산 대연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시집 『그래도 지구는 돈다』를 출간하며 문단에 데뷔하였다. 이후 여러 동인 활동을 하며 동인지를 발간하였다. 작품 활동 중 다른 장르에 목마름을 느껴 영화 시나리오 작가와 희곡 작가로도 작업하고 있다. 이번 오승일 작가의 희곡집은 '청춘포차', '로맨틱 VS 코미디', '원탁의 기사', '소풍가는 날', '증인들' 등 모두 5편의 작품으로, 희곡 발표와 함께 실제로도 많은 공연을 올린, 지역에서 보기 드문 창작 희곡을 실었다. 특히, 부제로 '창작 사투리 희곡집'이라 표현한 것과 같이 희곡 속 배우들의 대사를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여 읽는 재미를 색다르게 만들어 주고 있어 사투리로 된 희곡을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오승일
2019. 10. 05.
318쪽 / 17,000원



빛이 머문 흔적

사진가 조보규의 첫 번째 포토에세이이다. 작가는 이른 아침 눈 뜰 때면 오늘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어떤 사연들로 내 인생의 열정을 가득 채울 것인지를 생각한다고 한다. 하루하루 엮어 왔던 수많은 사연 속에서 고운 사연들, 후회로 가득 채웠던 날도 있었지만, 시시때때로 담금질을 계속해온 그 시간 속에 작가의 삶도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삶의 시간이 지나간 흔적과 함께 빛이 머문 흔적을 사진으로 담아 글과 함께 실었다. 길지 않은 글로 사진 속 찰나의 순간을 표현하는 감성이 오랜 연륜에서 빚어내는 작품과 같이 깊은 여운을 주고 있다. 특히 사진 속 색깔은 한 부분 부분이 예술 작품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명확하고, 때때로 보이는 깊은 명암은 삶의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

조보규
2019. 11. 01.
199쪽 / 18,500원



해몽

김화진의 첫 번째 시집이다. 1945년 일본에서 태어난 해방동일로 늦은 나이에 글쓰기의 침표로 시집을 출간하였다. 젊은 시절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산업역군의 역할을 묵묵히 해오면서 짊어지다 글쓰기가 이어져온 것이 한권의 책으로 엮이게 되었다. 부족함이 많다고 늘 말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가족과 자연을 그리며 써온 글 속에서 사랑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다.

김화진
2019. 12. 05.
101쪽 / 12,000원



진초록에서 진녹색으로

양혜경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진초록에서 진녹색으로』는 삶의 존재론적 사유가 녹아든 선적(禪的) 상상력으로 길어 올린 성찰의 시가 주를 이룬다. 삶에 대한 깨달음을 안겨 주는 성찰의 시들이다.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가 "최상의 깨달음이란 단지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고통으로부터, 고뇌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듯, 이 시집에도 고통과 고뇌(번뇌)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시편이 많다. 삶을 성찰하거나 반성적 태도를 갖춘 시편을 통해 삶을 다각도로 정의하고 있어 독자들도 이들 시편에 자신의 삶을 겹쳐 놓고 사유해 봄이 어떨까?

양혜경
2019. 12. 20.
105쪽 / 13,000원



비온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63번길 16, 1층
051-645-4115
www.beonwhobook.com
beonwhobook@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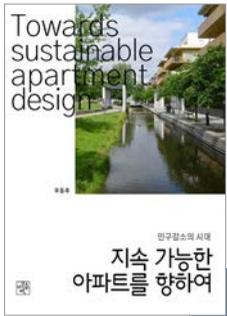


2000년부터 건축, 미술, 문화, 인문 분야의 출판을 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미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잡지 <비클립>을 발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출판사에 작은 책방과 커뮤니티 공간, 전시장 <보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 소통을 펼쳐보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아파트를 향하여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생성된 주거 환경 문제의 근원과 차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아파트 문제의 대안 마련은 전문가만의 몫이 아닌 대중적인 과제로, 전문가·행정가·시민·건설업계 모두의 합의가 요구되는 문제다. 저자는 아파트의 문제에 관한 쟁점을 짚어나가면서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지속 가능성을 하나의 관점으로 제안한다.

우동주
2019. 10. 31.
164쪽 / 15,000원



빨간집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 701동 809호
연락처 : 070-7309-1947
홈페이지: <http://rednhouse.tistory.com>
페이스북: [rhousebooks](https://www.facebook.com/rhousebooks) | 이메일: rhousebooks@gmail.com



빨간집은 사람, 문화, 예술, 여성, 지역을 기록하고 출판하는 소규모 기업입니다. 좋은 결과물을 위해 연구자, 디자이너, 사진작가, 예술가들과 협업합니다. 기록한 작업들은 현재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잘 지내나요 정남준 사진집

정남준 사진가는 2017년부터 부산 영도 대평동에 자리하고 있는 수리조선소 노동자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쇠락해가는 노동현장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과 깡깡이 아지매들에게 보내는 작가의 안부를 사진으로 표현했다. 노동자 시인 신경현의 시 일부를 발췌하여 사진과 함께 담았다.

정남준
2019. 06. 20.
160쪽 / 22,000원



육일문화사

부산광역시 중구 북병산길6번길 11
051-441-5164
book61@hanmail.net



90까지 배낭 메고 길 위에 서리라

40대 중반에 해외여행을 시작하여 90까지 길 위에 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배낭을 메고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겪은 일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서술되어 있다.

김현숙
2019. 02. 21.
352쪽 / 20,000원

시사 주간지 TIME 읽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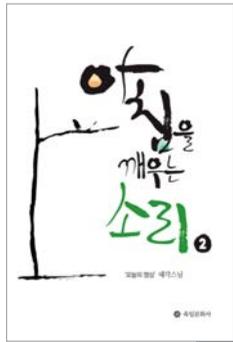
TIME이 가지는 특유의 관용구 및 어법, 문법의 복잡성,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읽는 데 겪는 어려움을 알고, 30년 이상 대학에서 영어학과 언어학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완벽한 TIME 입문서가 될 것이다.

안수용, 안정은
2019. 03. 13.
320쪽 / 20,000원

아침을 깨우는 소리 2

미국 보스턴 문수사에 계신 스님이 매일 새벽 밴드에 올린 명상의 글을 모은 『아침을 깨우는 소리』 1권의 호응에 힘입어 두 번째 책을 내었다. 복잡한 일상을 단순하고 편안하고 익숙하게 지게 하는 심포가 될 것이다.

혜각 스님
2019. 03. 14.
304쪽 / 12,000원



1989년에 설립된 육일문화사는 시집, 수필집, 소설집, 동인지, 회고록, 기념문집, 논설집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쓰겠습니다.

사랑, 황금빛에 물들다

다분야에 걸친 넓은 지식과 깊은 사색을 바탕으로 문학, 시사, 예술 등에 대한 서정성과 감수성이 깃든 글들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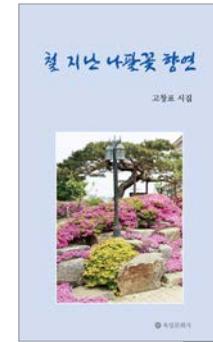
최화용
2019. 04. 20.
568쪽 / 20,000원



철 지난 나팔꽃 향연

저자의 세 번째 창작시집으로 제1부 대지의 봄맞이, 제2부 그걸 몰랐다, 제3부 그대 있대 내일이 있네, 제4부 저기 저 산더러, 네 개의 주제로 서정적이고 따뜻한 시들로 채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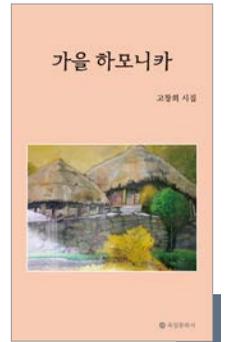
고창표
2019. 05. 16.
140쪽 / 10,000원



가을 하모니카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에 뜻을 두고 습작을 하였고, 정년퇴임 후 이를 바탕으로 가슴속에 묻어둔 밀어를 글로 토로하여 등단을 하고 첫 번째 시집을 내었다. 사색과 성찰로 깨달음을 이루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깊이 있는 시가 기대된다.

고창희
2019. 05. 21.
176쪽 / 10,000원



해의관광 1번지 동남아시아 여행

지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9회에 걸쳐서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자연과 문화와 주민들의 생활을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기록한 책이다.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강중구
2019. 06. 30.
320쪽 / 18,000원

청옥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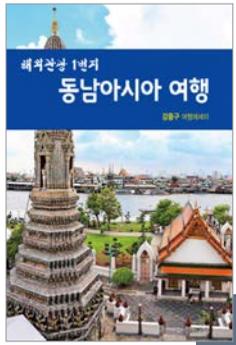
청옥당은 경북 청도에 있는 옛날 집으로 저자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기거하는 집이다. 소박한 삶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저자의 두 번째 수필집으로 가슴에 따뜻한 이야기로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정의록
2019. 08. 22.
256쪽 / 12,000원

해신이야기

가족들의 헌신과 새 시대의 좋은 약의 기적으로 다시 정상 생활을 회복한 저자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이야기를 간추려 낸 다섯 번째 수필집이다. 삶 이유와 같은 바다 사랑과 음악 예찬을 주제로 쓴 글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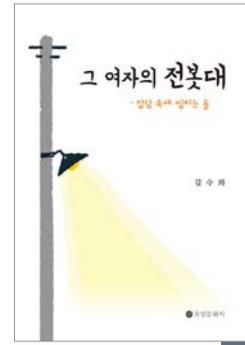
황선영
2019. 10. 31.
256쪽 / 10,000원



그 여자의 전봇대

주변 일상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듯 풀어내고 있다. 해학이 깃들여 있어 웃음을 짓게 되고, 마음을 관통하는 울림을 느낄 수 있다.

김수화
2019. 11. 15.
242쪽 / 12,000원



어머니

퇴임 후 첫 소설집을 내었고, 시간이 흘러 등단을 하고 내는 두 번째 소설집이다. 거울을 보는 듯 인간의 본성을 파고드는 예리함이 있는 열네 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다.

구자훈
2019. 12. 05.
288쪽 / 14,000원



그리움이 시가 된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세월 속에서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한 자 한 자 시로 풀어내었다. 아픔을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녹여내었다.

심현수
2019. 12. 16.
192쪽 / 10,000원





반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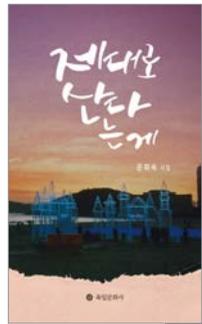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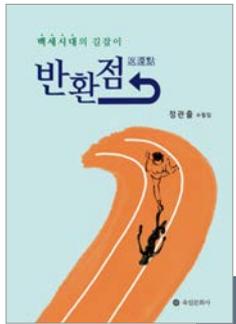
이 시대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과 백세시대이다. 퇴직은 종착점이 아니고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을 따름이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백세시대 길잡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관출
2019. 12. 26.
256쪽 / 14,000원

제대로 산다는 게

저자는 여고 시절의 꿈이었던 시집을 내기로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 페이지씩 메워나가며 두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순수하고 투명한 시집을 선물하고 싶은 저자의 마음이 담겼다.

문희숙
2020. 02. 14.
112쪽 / 10,000원



인디페이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출판의 가능성을 엿보고자 2015년 부산에서 시작된 1인 출판사다. 특히 지역출판사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미스터리, 추리, 스릴러, SF 등 장르소설을 중심으로 그 외 지역 콘텐츠와 관련된 도서들을 출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21센츄리시티빌딩 1604호
010-2308-1530
<https://blog.naver.com/indiepaper>
indiepaper@naver.com

완벽한 생존

SF스릴러 『시간 망명자』로 2017 SF 어워드 장편소설 부문 대상 수상 및 한국 장편 SF로는 처음으로 중국 최대의 SF 출판사 <과학세계>에 판권을 수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작가 김주영의 신작. 1999년 세기말 부산에서 벌어진 어느 살인사건을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다. 작가는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이 한순간 벌어진 범죄 앞에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미스터리 스릴러 기법으로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회의 한 단면을 독자들에 눈앞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묻는다. "당신은 안녕하시나"고.

김주영
2019. 06. 28.
276쪽 / 13,000원



전망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55, 201호
051-466-2006
w441@chol.com

전망

삶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

『삶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은 주변에서 자주 접하기 쉬운 사안이라는 렌즈로 예술을 조명하고 저자의 실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과 인문학의 세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누구나 삶과 예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론서이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예술과 삶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알기 쉬운 사례를 통해 예술을 이해하고, 뒷부분에서는 소설과 소설 속 인물들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며 예술과 삶의 난제들을 풀어간다.

정혜경
2019. 03. 20.
302쪽 / 15,000원

걷는 자의 대지 2 길과 글 사이에서

하창수 문학평론가의 산문집이다. 저자는 문학평론가로, 교육자로 활동해 오다가 오랜 교편 생활을 마무리한 시점부터 길 위의 삶을 시작했다. 답사기이자 기행수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곳곳의 사람과 삶의 모습, 자연의 모습 등을 직접 체험에서 우리나라의 육성으로 들려준다. 거기에 더하여 평소 문학연구자로서의 교양과 지식과 지혜가 더해져 감칠맛 나는 글이 되었다. 책의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 마음을 쉬어가게 하는 사진 또한 저자가 직접 찍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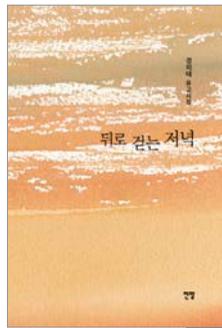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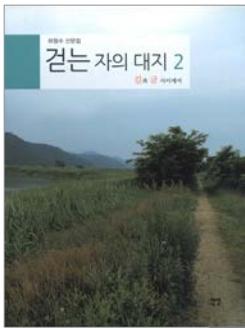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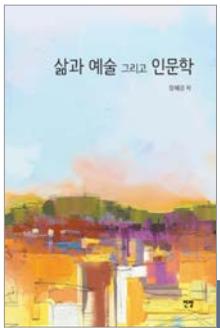
하창수
2019. 05. 10.
592쪽 / 35,000원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뒤로 걷는 저녁

가끔씩 싱거운 농담을 던지며 좌중을 웃겼던,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초철살인(寸鐵殺人) 같은 시구로 시대에 대한 풍자와 분노를 드러내었던 정의태 시인. 불의의 병마와 싸우면서도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시인의 1주기를 맞아 전망출판사(대표 서정원)에서 유고시집 발간위원회(강희철 문학평론가, 김남영 문학평론가, 김요아킴 시인, 이은주 시인)를 꾸리고, 생전에 발간한 시집 이후의 작품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50편의 유작을 정리하였다.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이 된 이 유고시집에는 시인 특유의 허무적이고 냉소적인 어조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은 희망과 사랑이 담긴 시편들이 실려 있다.

정의태
2019. 05. 30.
112쪽 / 10,000원



1992년 설립되었으며 시집, 소설집, 수필집, 문학비평서 등 문학 중심의 서적을 출간해왔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문학 서적, 사진집, 번역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발간해 온 시전문계간지 <신생>을 통하여 지역문학과 문화의 텃밭을 가꾸어왔다.



참, 고마운 만남

2010년 결성된 드레문학회는 시와 수필 문학을 함께 하는 동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동인들 모두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 동인지를 창간하여 이번 책이 그 다섯 번째 결과물이다. 동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데우고 식힐 시 한 편, 어머니의 밥상처럼 진솔하고 소박한 한 편의 수필을 쓰기 위하여 차분한 자기성찰의 인생을 마주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창작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번 동인지는 특별히 미수를 맞이한 지도 선생님(유병근 시인, 수필가)에 대한 고마움을 담고 있다.

드레문학 동인
2019. 07. 01.
231쪽 / 12,000원



팔호 안의 고백

이효애 시인에게는 땅에서 나는 온갖 식물들이 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촉매제 기능을 한다. 도시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그 생장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나무와 꽃 그리고 온갖 나물에 대한 시적 형상화는 시인이 얼마나 땅의 공간에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땅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효애 시인은 그런 자연의 공간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중에 절로 쓰드는 세계인식을 소중히 간직하려 한다. 시인에게 자연은 위대한 스승인 것이다.

이효애
2019. 07. 05.
125쪽 / 10,000원



팀장 이유나

김의원 장편소설의 주인공 이유나는 팀장이다. 팀 내에 부하는 한 명도 없지만 그래도 그녀는 장(長)이다. 엄마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교사들을 일일이 지원해야 하는 이유나의 하루는 힘들고 빠듯하다. 투덜대며 짜증을 부리기도 하지만 씩씩하고 유연하게 맡은 일을 해 나가는 이유나의 모습이 매력 있게 그려진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하나하나의 에피소드 속에서 그들만의 우정과 눈물과 애증이 보인다. 살아남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여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유나와 같은 동료가 있다면 살아남는 게 목표인 듯 보이는 이 거친 삶이, 그래도 좀 견딜 만하지 않을까.

김의원
2019. 07. 10.
277쪽 / 14,000원



빙점 아래 피는 꽃

양윤형 시인은 시적 언어의 다의적 의미를 이미지와 결합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시인의 시가 무게 있게 나타나는 것은 삶의 본질을 다루는 것에 있으며 그러한 목소리가 기도와도 같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현대시의 관건이 되는 의미의 중첩을 응시하는 자세를 통하여 시인은 시세계의 시적 지평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양윤형
2019. 07. 20.
141쪽 / 12,000원



하늘은 살아있다

이정호 시인이 사물에 다가서는 방식은 종래의 보편적 인식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해체적 문법을 통해서 사물의 속성을 객관화하려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대상은 언제나 전통적인 속성에 놓여 있으나 이에 접근하는 방식에 실험적 의미를 가미하여 전위의식을 통한 자기만의 대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자세가 시적 매너리즘을 초극하고 있다.

이정호
2019. 07. 25.
125쪽 / 10,000원



흘날리는 씨앗으로

류옥진 시인의 시에는 현실과 삶을 형상화하면서 만났을 수많은 사람들과 이미지들이 편린처럼 흩어져 있다. 시인의 사고와 마음에서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소재들인데 그 가운데 주요한 소재 하나가 바람이다. 바람의 이미지는 곧잘 풍경이나 서정과 연결된다. 또한 허무나 소멸적인 소재들과 매개되어 왠지 모르게 스산하면 서도 쓸쓸한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바람은 미지의 공간에서 시작되어 또한 미지의 영역으로 흘러가는 공기의 흐름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지나치는 곳을 상상하더라도 그것이 환기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역으로 귀결되어지기도 한다.

류옥진
2019. 07. 31.
156쪽 / 10,000원



농부와 고양이 환경미인 농사 다이어리

교사이면서 14년차 농부이기도 한 저자가 10여 년 동안 쓴 농사 일기를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사랑과 정성을 들이고 자생력도 키워야 병충해에 강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사와 교육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추구하는 자연농법과 생태농법은 물론, 공생하고 나누고자 하는 저자의 농사철학이 책의 갈피마다 엿보인다. 책 후반부에는 아내인 강경숙 동화작가가 쓴 청도에서 부산까지 함께 걸어가는 여행기가 실려 있다. 평화롭고 잔잔한 사람살이의 재미와 감동이 있다. 각종 작물의 농사법과 효능에 대한 상식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하봉환, 강경숙
2019. 08. 20.
336쪽 / 16,500원



시간 감각

최순해 시인은 시간이라는 무형의 것을 구체적 사물에 빗대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감각의 형상으로 시적 형상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의 시적 비유 방식은 무형의 감각을 유형의 감각으로 끌어내는 감흥의 방식을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관계와 관계, 인식과 인식의 지나친 거리감으로 시적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비유 방식은 시를 단순한 소통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는 시인의 시적 태도에서 비롯한다.

최순해
2019. 08. 30.
143쪽 / 10,000원



8병동의 동방

백영희 시인의 시집 『8병동의 동방』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며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인의 눈에 비친 구순 노모의 모습은 불보살의 모습이기도 하고 옛된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다. 시인의 고통과 애틋한 마음을 담은 시집이다.

백영희
2019. 10. 15.
102쪽 / 10,000원



그리운 이의 집은 출렁이는 신호등 너머

최수지 시인은 누구도 닮지 않은 목소리로 규정하기 힘든 잠재된 내면을 드러내거나 주변 환경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디테일하게 증언한다. 마주친 풍경을 주목하며 '다양한 삶의 층위'를 기록한 일상은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사물에 대한 관심은 모티프로 작동해 지속적으로 호출되고 짧고 간결하게 언어를 나열하는 방식은 '빠르게 스미고 깊이 번진다'. 설치된 오브제들을 활용하여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최수지 시인의 특징적이다. 마침내 인식된 것들로 여백은 사라지고 공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최수지
2019. 10. 18.
134쪽 / 10,000원

바람이 되는 이유

경남 의령 출신의 환경운동가이자 현재 사단법인 부산그린트러스트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성근 씨의 시집이다. 저자는 오랜 세월 환경운동에 몸담아 오면서 꾸준히 시를 써왔다. 나무와 풀, 새 등 자연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시가 고였다고 한다. 그렇게 30여 년간 모아온 시편들을 책으로 엮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의 절실함과 진정성이 감동적으로 전해오는 시집이다.

이성근
2019. 10. 26.
192쪽 / 12,000원

몽상의 저녁

김지은 시인에게 있어 존재 확인이야말로 시적 담론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시인의 시적 방법론은 단순한 서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프로이트의 내면 의식과 심지어 칼 융의 집단무의식에까지 축수를 뺀고 있다. 시인의 의식은 '몽상'과 '환상'이라는 초현실적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도시와 자연과 문명의 현상들에 대해 다각도로 천착하고 있다.

김지은
2019. 11. 12.
144쪽 / 10,000원



전망

자정의 바다

양선빈 시인의 시는 결국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삶의 질곡과 진정성에 천착하고 있다. 주변의 모든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시적 방법론과 상상력의 깊이를 추구한다. 삶은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하여 단련되는 하나의 총연습으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낸다고 하는 시인의 시적 인식을 반영한 시편들이다.

양선빈
2019. 11. 14.
110쪽 / 10,000원

오후 네 시,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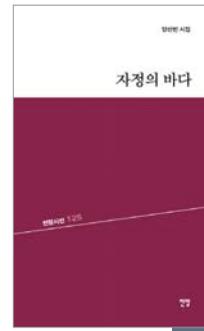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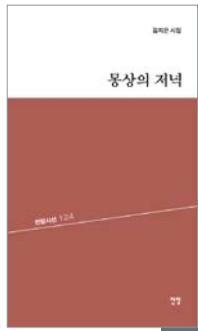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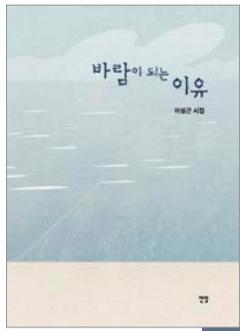
국문학을 전공하고 오랜 시간 학생들을 지도하며 창작 활동을 했던 정문숙 작가는 몇 년 전부터 문화원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었다. 가슴 아픈 사연이나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놓는 수업시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 책에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유명한 작가가 아닌 보통의 어르신들이 수줍게 풀어놓는 이야기는 직접 겪은 일이라는 데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작품 앞에 놓여있는 작가의 실전 글쓰기 노하우에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작가의 글쓰기 노하우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 등 읽을거리와 볼거리가 많은 책이다.

정문숙
2019. 11. 15.
268쪽 / 14,000원

길의 안부를 묻다

인문학 북카페 백년어서원은 '글쓰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글쓰기를 통하여 생각과 질문의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우리 삶과 공동체를 고민하며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용기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정확한 인문학운동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시민들의 글쓰기'라는 취지의 결실로 2014년부터 폭력, 공존, 장소, 돈, 자유, 공부라는 주제로 책을 엮었다. 올해의 주제는 '길'이었다. 우리 시대의 길, 우리 내면의 길, 삶의 길 등 길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담은 작가, 시민, 학생들의 글 34편을 실었다. 필자들의 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지 스스로 고민해 보게 되고, 불편하고 느린 길 위에서도 '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 볼 수 있을 것이다.

백년어서원
2019. 11. 15.
364쪽 / 14,000원



탈진 무크지 펄 Vol.7

젊은 작가들이 시와 소설의 형식을 빌려 우리 시대의 '탈진'을 사유한 책이다. 우리를 탈진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사회시스템의 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 그 궤도를 벗어나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강경아, 김요아킴, 박길숙, 서유, 이기록, 이소희, 이이후, 허유미, 황형철 시인과 서정아, 이정임, 한경화, 유응오 소설가, 김만석, 김필남, 우은진 평론가가 참여하였다.

우은진 외
2019. 12. 17.
221쪽 / 14,000원



명사들의 독서 모임 '하무리'는 2000년 탄생했다. '하무리'는 드러나지 않게 은은하게 비치듯이 존재하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봉사하는 모임이라는 뜻이다. 현재 하무리 회원은 김봉수 전 부산MBC 보도국장, 단원배 부산국제교류협회 회장, 박시환 푸르비아 건축사사무소 대표, 설영만 설외환센터 대표, 안홍길 (주)한국특수파이프 대표이사, 오거돈 부산시장, 위재호 조은금강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 유동운 부경대 명예교수, 이상준 (주)화인 대표이사, 이상찬 세화병원 원장, 이성식 세이프텍(주) 대표, 이성을 화인케미컬(주) 대표이사, 이재호 변호사, 장제국 동서대 총장, 정영환(주)고려 T&I 대표이사, 차문석 위대한탄생 여성병원 원장, 허황 전 부산시립미술

하무리 제7집

관장 등이다. 하무리는 매달 한 차례 독서 모임을 해왔다. 그동안 함께 읽은 책은 186권에 이른다. 이번 7집 1부에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도서에 대한 서평을 담았으며, 2부 '하무리가 만난 세상'에서는 회원들의 다채로운 수필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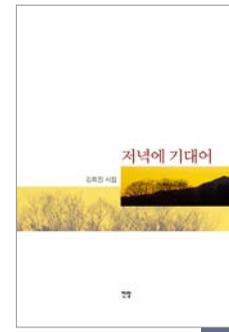
정영환 외
2019. 12. 20.
10,000원



저녁에 기대어

김희진 시인의 시적 진전은 영혼의 고통에서 시작해 영혼의 깨어남, 영혼의 단련과 양육, 영혼으로의 비상을 통해 영원한 존재로 구원받기를 하나의 서사로 표현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혼의 이야기는 늘 슬픔과 고통의 뒤안길에서 발생한다. 자신의 '통증'으로 세계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존재 초월의 실마리를 마련함으로써 구원의 의미가 바로 영혼의 발견과 단련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영혼의 발견과 단련의 현실적이고도 실천적 장이 바로 시쓰기에 있음을 시인은 분명히 의식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 내용은 보는 사람도 영혼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명하기 어렵다. 상처 많아 쓸쓸한 영혼의 풍경을 가진 김희진의 시는 물질로 뒤덮인 우리 시대의 가여운 영혼들을 흔들며 깨워 참된 삶과 존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김희진
2019. 12. 25.
127쪽 / 10,000원



소금꽃

벤야민은 소리의 형태로 회상의 순간들을 떠올린다고 말한다. 간혹 어떤 소리는 기억 주체의 의식적인 노력 너머, 심연의 부름으로 그때 그 순간들을 소환하기도 한다. 모두들 각자의 길에서, 정렬(整列)된 기억에 기댄 채 또 하루를 살아간다.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며, 갈무리되어 잊힌 것들에게 '망각'이라 명명(命名)하며 또 지나친 하루를 저장한다. 여기 시인 이윤정은 보다 큰 귀를 가지고, 보다 쉽게 잊히는 사람들의 소소하고 애뜻한 소리들에 귀 기울인다. 경험의 흔적들이 있는 장소에 가 본 사람들은 안다. 그 쓸쓸히 사라져 갔던 것들이 '나'를 불러들이는 소리를. 무수한 이미지들이 '나'를 다시 '그때 그곳'으로 데려가 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간혹 그 시공간을 초월한 물질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오래전 역사적 경험의 공간으로까지 '나'를 불러들이는 사실을.

이윤정
2019. 12. 27.
221쪽 / 10,000원



제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3층
010-5612-3023
www.byzeze.com
인스타그램: zeze.official_ | zezedesign@naver.com



종의 매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것은 얇고 어느 것은 두껍고, 어느 것은 거칠고 어느 것은 비단처럼 곱습니다. 종이 위에 글을 얹고 그림을 표현하는 일이 즐거워 시작한 일. 종이와 잉크라면 사랑 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버릴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향을 함께 실현하고 싶어 지역 작가들과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지그시 짊어 놀러 오래도록 간직하는 일, 그것이 제제입니다.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도, 불안과 두려움이 날 덮쳐도 그 끝에는 이겨내 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구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마음 안에 가진 의지만큼은 분명하구나. 안타깝지만 불행하지는 않구나. 그러므로 세상에 들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때때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같은 고민을 하는 제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말합니다. [이]토록 [안]타까운 [나]. 세상의 수많은 이안나에게 이 책을 선물합니다. 책을 덮은 후 몇 달, 몇 해가 지나 결국은 이토록 황홀한 나. 이토록 황홀한 당신이 되어있기를 바랍니다.

손현녕
2019. 08. 23.
206쪽 / 12,000원

스토리북엔필름 베스트셀러 1위,
이후복스 베스트셀러 1위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 (그림책)

에세이 작가 손현녕 X 그림작가 정진주의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 그림책' 손현녕 작가의 네 번째 독립출판 에세이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 베스트 30편과 미공개 글 10편을 추가하여 그림책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이]토록 [안]타까운 [나]. 세상의 수많은 이안나에게 이 책을 선물합니다. 책을 덮은 후 몇 달, 몇 해가 지나 결국은 이토록 황홀한 나. 이토록 황홀한 당신이 되어있기를 바랍니다.

손현녕 지음 / 정진주 그림
2020. 04.
96쪽 / 16,000원



책펴냄열린시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1, 203호
051-464-8716
http://cafe.daum.net/see-sea
myung5244@hanmail.net



1991년 설립한 책펴냄열린시는 부산의 1인 출판사로서 1995년 창간한 시 전문 월간지 <열린시>를 3년간 발행한 바 있고, 현재는 문학서적 전문 출판사로 주로 시집 출판물 근간으로 하여 그 외 수필, 희곡, 철학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집은 <가슴에 내리는 시> 시리즈를 현재 90여 종 발간하였고, 전국 서점에 직거래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자 없고 하자 없는 완벽을 목표로 삼습니다.

랍비, 저수지에 있다

2018년 문학도시를 통하여 등단한 시인의 첫 번째 시집. 조정이 시인의 시는 자연이 간직한 서정성을 바탕으로 삼아 우리 삶과 자연을 이미지화하여 노래하는 개성 있는 작품을 생산한다. 자연으로부터 차용한 인과 법칙들을 인간사회에서 적용시켜 새로운 의미를 추출해 낸다. 현재 전원생활을 하면서 술한 자연과 접촉하면서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의미들을 캐내어 차별성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보여 준다.

조정이
2019. 01. 22.
128쪽 / 10,000원



사랑, 너를 가둔다

김정숙 시인은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사연들이나 사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지닌 본질에 접근해 가는 방법의 시를 써낸다. 우물, 나팔꽃, 석양, 다보탑, 무당벌레, 자작나무, 허수아비 등 시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들만 보아도 흔히 만날 수 있는 생활 주변의 것들이다. 소재가 쉽게 구해진다고만 들었던 작품이 쉬운 것은 아니다. 소재가 쉬울수록 시에 담기는 세계가 더 심오해지지 않는다면 그 시는 일상의 넘드리로 전락해 독자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김정숙 시인의 시작 태도는 수월함이 없다.

김정숙
2019. 05. 13.
144쪽 / 10,000원



시간은 디자인된 삶을 재단한다

명은애 시인의 시는 매우 탄력적이다. 표현에서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비유는 현실 그 이상으로 치달는다. 그렇기에 상상력의 진폭이 크고 넓다. 의미의 영역도 자연스럽게 넓어져 유동성이 큰 진폭으로 개별적 삶의 예시를 일반화시킨다. 명은애 시인의 작품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1) 아포리즘을 차용한 현실 인식을 통해 시간과 존재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개별적 존재의 의미를 추구한다. 2) 새롭게 인식된 현실 속에서 자아를 추구하는 정신적 방향을 그려냈다. 3) 불우한 처지에 속한 이웃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애린의 마음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명은애
2019. 05. 15.
128쪽 / 10,000원



침묵, 눈을 뜨다

이효순 시인은 2013년 <삶터문학> 신인상에 당선하여 등단한 이후 활발한 문단 활동을 통하여 시적 영역을 넓혀 왔다. 2017년 첫 시집 『거울 밖으로』를 상재하고 끝없는 갈증으로 자신의 시세계를 탐구하며 늘 새로운 도전에 목말라 있다. 이 시인의 관심사는 자연과의 어울림이며 사람에 대한 애련의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다. 시인이 자연 속에서 인간을 발견하는 일은 자연스럽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인간이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인의 시는 자연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귀결한다.

이효순
2019. 07. 25.
144쪽 / 10,000원

오늘을 경매하다

2017년 <시와소금>으로 등단한 시인이 대산창작지원금을 받아 출간한 역작 시집이다. 신진련 시인의 작품 소재는 우리가 갖는 일상과는 다른 풍경이기에 한참 낯설다. 신진련 시인의 작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갈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소묘'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의 시는 소재 자체 만으로도 우리에게 낯설다. 이 시집에 실린 시의 소재는 모두 자갈치 어시장이라는 특정된 공간에 국한되어 쓰여졌다. 시인에게 자갈치가 던져 주는 의미는 단순한 위치적 차원을 뛰어넘어 새로운 의미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누가 이처럼 자갈치에 대한 장소적 특수성에 매몰된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없다.

신진련
2019. 08. 20.
128쪽 / 10,000원

2018년 대산창작기금 수혜 시집



속대발머리

1977년 등단한 시인의 29번째 시집으로 교직에서 은퇴 후 전원생활에서 얻은 여러 제재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노래한 목가시집이다. 시인은 도시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많은 사실들을 발견하고 경이로워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발견의 즐거움이 하내에 든 나를 사로잡는다. 여기에 실린 시들은 그 발견들을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내게 낯설다. 울타리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낯선 일들이 술하게 많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도 많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

강영환
2019. 09. 05.
128쪽 / 10,000원



시로는 짝사랑

1989년 <동양문학>으로 등단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갈매시> 동인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발간한 시집으로 『사마리아의 여인』, 『새들이 돌을 깬다』가 있다. 오원량 시인의 작품은 사물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두 가지 형태로 나뉘지는 시는 첫째가 사물시이며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발견이다. 그의 사물을 노래하는 시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 모든 시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노래하게 되지만 오원량 시인의 사물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물이 아니라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밝혀 봄으로써 인간을 발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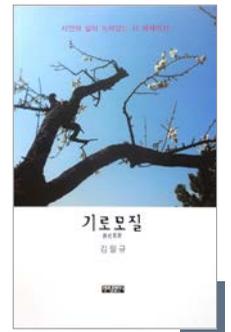
오원량
2019. 10. 31.
128쪽 / 10,000원



기로모질

시집 『잡목으로 서서』, 『가슴에 흐르는 강』, 『달빛 푸른 골짜기』, 『어머니의 지팡이』, 『꽃무릇 피는 사연』, 산문집 『내안의 흑백사진』을 펴낸 김필규 시인의 시 에세이집이다. 중국에서는 6, 70세를 기로지년(耆老之年)이라 하고 8, 90세를 모질지년(耄耋之年)이라 한다. 요즘 밖에 나가 보면 온통 기로모질인(耆老耄耋人)들이 넘쳐나니 노인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라고 야단이잖은가. 교직을 은퇴하고 시창작을 하면서 시에 얽혀있는 재미나는 생활상을 산문으로 풀어내는 행복한 삶을 담고 있는 에세이집이다.

김필규
2019. 11. 02.
256쪽 / 15,000원



시간을 택배 받다

《한국시원》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하여 시집 『낮달을 찾는다』를 상재한 이호원 시인은 젊은 시절 꿈꾸던 문학청년이었고 직장 생활에 충실하면서 그 꿈은 잠시 접어 두었다. 『시간을 택배 받다』에서는 요양병원이 나를 가두는 시계라는 사실이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내게 시간이 택배로 배달되어 온다. 시계 속에 모든 걸 저장해 두고 시계가 원하는 대로 밥 먹고, 마시고, 자고, 숨 쉬고 하지만 얽매임이 싫어 한때는 밖으로 나가 숲도 보고 사람 붐비는 자장거리도 보고 싶었지만 시계는 작은 손짓마저 거부하여 밖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바꿔 먹게 되었다.

이호원
2019. 11. 04.
144쪽 / 10,000원

아주 오래된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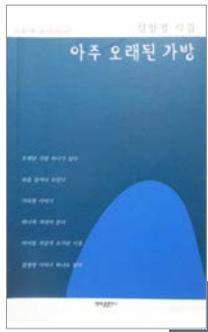
《창조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다. 성장경의 시에는 순하디순한 언어의 얼굴이 시인의 성정을 그대로 통과해 나온다. 진지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기도 하고 사소하고 허술한 풍경을 진지하게 끌어내면서 결국에는 예민한 감성으로 변용시키고 만다. 그의 시는 상실 자체이면서 사실과 기억을 담담하게 소환하는데 에너지가 있다. 그가 붙잡으려 하는 것, 매번 손을 내밀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 어쩌면 그는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시인을 사로잡는 필생의 이미지가 되었을 것이다.

성장경
2019. 11. 20.
144쪽 / 10,000원

물결무늬 종소리

2014년 제1집 『그림나무 詩』를 창간호로 시작하여 제2집 『안경을 닦다』, 제3집 『길없는 숲 여기저기』, 제4집 『움직이는 섬』, 제5집 『당신을 읽는다』에 이어 2019년 제6집 『물결무늬 종소리』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림나무는 2012년 출범한 영광도서 시장작반이 만든 시문학회로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문학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 시문학단체이다. 2019년의 창작 활동의 결산으로 만들어내게 된 앤솔로지 『물결무늬 종소리』는 회원들의 역할들 중에서 대표되는 작품을 모아 엮어낸 책이다

그림나무 6집
2019. 11. 25.
200쪽 / 15,000원



수레에 길을 싣고

2011년 《문학예술》을 통해 등단한 김주현 시인은 소재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끌어 내거나 함께하는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견지하고 있어 참 정겹고 아름답다. 자칫 빠지기 쉬운 소재주의에 침몰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내면서 나름대로 소재를 풀어내는 방법론을 터득하고 있다고 본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꽃이나 지렁이들에게도 주제적 인격을 부여해 몰아일체를 지향하는 세계관을 실현시킨다.

김주현
2019. 12. 05.
128쪽 / 10,000원



내 마음속 수채화

《한맥문학》을 통해 등단한 조현자 수필가의 첫 수필집. 한 평생 교직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현장의 희로애락을 담담한 심경으로 풀어낸 에세이집이다. 어린 학생들과 어울려 지냈던 교직의 즐거움과 애잔함 그리고 많은 에피소드를 통하여 삶이 어떻게 아픔과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격동기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체험을 통하여 낮은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조현자
2020. 02. 20.
176쪽 / 15,000원



숲속의 어부

197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강영환 시인의 서른 번째 시집이다. 시집 곳곳에서 서정성이 가득 묻어나는 작품들이다. 오늘날의 젊은 시인들이 쓰는 시가 지나친 환상과 관념과 난삽한 언어 추구로 시를 시답게 하는 원형적 서정성을 잃어버리고 시인들과 행복을 가져다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격동기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체험을 통하여 낮은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무관한 듯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시집 『숲속의 어부』는 구체적인 언어와 이미지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작품들이어서 좋다. 이런 서정성이야말로 우리 시인들이 잊지 말고 추구해야 할 덕목이라는 걸 보여준 시집이다.

강영환
2020. 05. 04.
128쪽 / 10,000원



한국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08번길 7-3, 부산인쇄조합 3층
051-929-7131
www.mkorean.com
sahachanchan@hanmail.net



비행(飛行)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며 이륙하여 힘차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항공기 엔진의 추력(Thrust)이 강력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려면 신앙의 추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신앙의 추력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仰望)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신앙의 추력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듯이... 또한, 비행기가 이륙과 착륙할 때는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야 안전하게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관제탑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듯이...

강을배
2019. 04. 20.
296쪽 / 12,000원

좋은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원인이 있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도 그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은 참으로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알맞은 전도방법을 갖고 있는가의 차이였다.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대상자들과 새신자를 섬기는 일에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교회다. 평신도에서 장로로 살기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교회 부흥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과 생각을 공유해 보자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교회 부흥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실 것을 바라며, 작은 생각이라도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석재
2019. 07. 10.
260쪽 / 12,000원

환상의 행성 스강나하르

머잖은 미래에 인류에게 닥쳐올 엄청난 재앙과 인류의 생존 전략. 인간의 잠재의식에는 선과 함께 악도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선이 타인에 대해 베풀고 욕구를 인내하는 것이라면, 악은 타인으로부터 빼앗고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본능이다. 악은 선에 비해 지극히 유희적이고 파상적이며 격동적이다. 선이 소극적이고 그 파장이 은근할 정도로 미약하다면, 악은 적극적이며 그 파장이 파괴적이다.

김영찬
2019. 09. 10.
516쪽 / 35,000원

『도서출판 한국인』은 1976년 6월 종합광고대행사 『데코·브레인, 산하에 설립된 『도서출판 비둘기동지』의 후신으로 1990년 『주식회사 한국인』 법인 설립과 동시에 현재의 출판사 명칭으로 바꾸었다. 지난 40여 년간 2만여 종의 책자(카탈로그, 정기간행물, 사보, 문학 관련 단행본 등)를 제작·출판해 오으로써 중이책 발간 분야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출판사 대표이면서 시인·수필가·소설가·동화작가로 활동 중인 김영찬 작가의 작품집을 40여 종 출간해 왔으며, 향후 종합문예지 『월간문학 한국인』과 『월간 부산문학』 등 2종의 문학 관련 정기간행물 발행과 함께 부산 지역 작가들의 작품집을 엮어 출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동지(冬至)

인간은 누구나 완장을 잘 기회가 주어지면 악마로 돌변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운명이란 것이 주어지는데, 이 운명이란 것은 몇몇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개개인이 어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태생부터 왕후장상의 품격을 이어받아 평생을 고귀하게 보내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하찮은 행복마저 타인에 의해 짓밟히고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데 길들여져 있다.

김영찬
2019. 09. 10.
228쪽 / 15,000원

2019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금 제작 도서

정감이 묻어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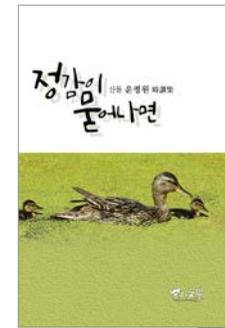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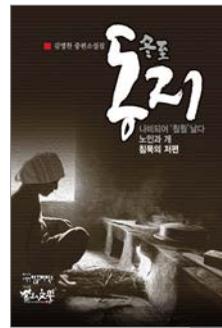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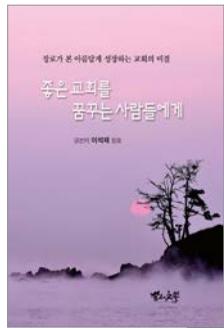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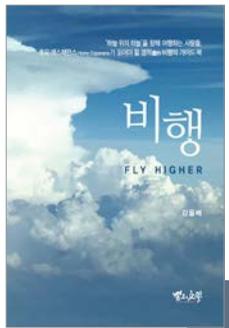
윤희원 시조집은 7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기독교 장로로서의 친교·선교·순교의 정신과 신앙관, 세계관, 가치관을, 2부는 일제의 압박과 동란의 폐해와 민주화를 위한 몸부림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어르신 세대의 애환을 담았다. 3부는 공책을 들고 글씨로 그림을 그린 화첩기행이요 노정시집이요, 4부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그의 테마시조요, 5부는 사라져 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읊었다. 6부는 꽃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으며, 7부는 인생길 같은 소풍길에 나선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윤희원
2019. 10. 30.
228쪽 / 12,000원

우리들의 포장마차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가장 서민적인 포장마차. 가장 인간적인 공간. 적어도 포장마차 안에서만큼은 일체의 가식과 허영과 체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울감이 없듯이 열등감도 없고, 거만함이 없듯이 비굴함도 없고, 자만함이 없듯이 겸손함도 없는 곳. 모두가 주연배우인 양 무대의 정면으로 나설 수 있는 곳.

김영찬
2019. 11. 20.
228쪽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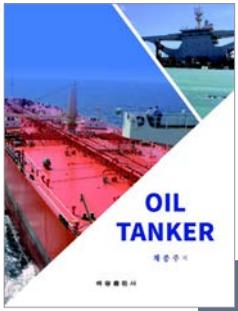


해 광 출 판 사

오일 탱커

2015년 이후 유조선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의 단일 선체구조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고, 1994년 5월 이후 신조되는 유조선은 모두 이중선체구조로 건조하도록 한 MARPOL 협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지 선체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문제에 의한 사고라기보다 안전운항 측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조선은 운용하는 선원들이 유조선의 안전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업적 능력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조선의 구조와 설비에서부터 유조선 하역 실무와 유조선의 운항과 관련 검사 부문을 수록하였다. 더불어 유조선의 보수 정비와 안전에 관한 부분까지 기술되었다.

채중주
2019. 02. 27.
486쪽 / 27,000원



해사 사이버 보안의 이해

현대의 해사(海事) 산업은 '스마트십'을 중심으로, 선주-화주-기국-항만국 등을 IT로 잇는 디지털화의 총 집합체이다. 위험화물과 연료를 대량으로 적재한 채 각국 항만을 드나드는 대형선박이 사이버 보안의 위협에 닥쳤을 때 사 산업에서의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헤아리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 책은 해운선사, 해기사, 화주, 하도급 협력업체 등 해사 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사이버 보안의 의미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소개한 후, 국제기구와 산업계가 제시하는 규정과 규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무적 설명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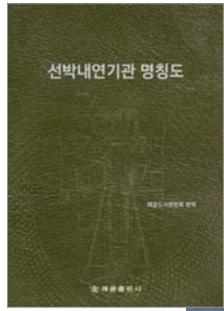
최성민, 박재홍
2019. 09. 18.
366쪽 / 22,000원



선박내연기관 명칭도

선박내연기관의 부분들을 그림과 함께 명칭을 표기하였다. 선박기관 관련 종사자의 참고교재로, 특히 초보자의 기관지식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은 각 도면, 각 부분의 명칭을 국·영문으로 실었으며, 찾아보기는 한영, 영문으로 되어 있어 용어 집과 부품 주문 및 구입 시 카탈로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광도서편찬회
2020. 01. 15.
232쪽 / 2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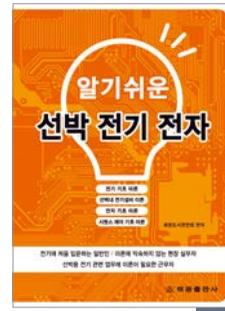
해광출판사는 1955년 설립된 문우당서점의 자회사로 시작하여 현재 40여 종의 도서를 출간하였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관련 전문도서와 해양 관련 도서를 펴내고 있는 출판사이다. 부산의 문화와 함께한다는 의지로 대부분의 도서를 부산에서 편집, 인쇄, 출판하여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다.



알기쉬운 선박 전기 전자

초급 해기사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선내의 여러 전기설비의 구성이나 취급법을 중심으로 그 바탕이 되는 전기공학 및 전자공학의 기초 이론을 알기 쉽게 해석하였다. 자동제어의 개요와 시퀀스제어에 사용되는 기기 및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논리회로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기관 파트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기를 어렵게 느끼는 해기사와 전기를 공부하는 일반 독자들의 참고 도서이다.

해광도서편찬회
2020. 04. 15.
284쪽 / 23,000원



해성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37번길 7-1, 3층
051-465-1329
www.book0485.com
book0485@hanmail.net



시골버스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동시가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동시를 쓰기 시작한 구용 시인 13권의 동시집을 발간하는 동안 매년 분명한 테마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준 시가 이번에는 우리 고장의 특산물 이야기를 테마로 한 동시집으로 찾아온다. 신토불이라는 말처럼, 우리 먹거리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신 시골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동굴레, 촌맹이 딸기, 간고등어, 소용골 영두 등 이름만으로도 정겨운 지역 특산물을 동시로 만나 고장의 우수성과 맛으로 느끼는 시를 담고 있다.

구용
2019. 02. 01.
136쪽 / 12,000원

감나무집 동백꽃

1976년 등단한 이래 소설, 동화, 희곡, 연극평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문홍 작가가 가족소설을 내었다. '감나무집'이라는 상상의 집을 지어 놓고 한자리에 대가족을 모았다. 채원이라는 감수성이 강한 여고생을 화자로 두고, 그들의 사계절을 담담한 문체로 그려내었다.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듯이, 우리 주위에 화려하고 눈부신 삶도 있지만 그늘진 삶도 있다. 작가는 넘쳐흐르는 소비와 욕망보다는 순리에 따르며 느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김문홍
2019. 08. 05.
264쪽 / 15,000원

숫돌에 칼을 갈며

저자는 나이 열일곱에 일간지 어린이 판 연재만화로 시작해, 이후 월남전 참전으로 사진의 기록성에 매료되어 사진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 판화로 장르를 옮겨 칼맛 나는 목판화를 고집하며 여러 번의 전람회를 열었고 신문소설의 삽화를 목판화로 시도해 무려 1천여 회를 연재하였다. 지금은 김해 신어산 북방골짜기에 문혀 판화를 제작하고 글을 쓰며 여유자적 살고 있다. 『숫돌에 칼을 갈며』 저자가 자연과 함께한 이리저리한 상념의 편린을 버무려 담은 나물종기이자 그에 술 한 잔 얹어 낸 소반 같은 정겨운 글을 모은 책이다.

주정이
2019. 11. 01.
228쪽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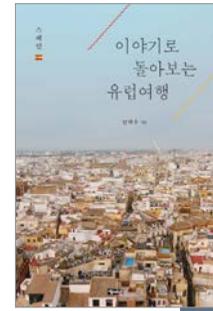
1989년 설립한 도서출판 <해성>은 31년간 지역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해성시선>, <해성소설선>, <해성희곡선>, <어린이문고(동화·동시)> 시리즈와 지역문화콘텐츠 대상으로 꾸준히 출판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단행본(500여 권)을 발간하여 2012년 문화부 우수도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세종우수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6년 이후 3회에 걸쳐 부산문화재단 지역출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과 2018년에는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공모에, 2019년에는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청소년종합문예지 <푸른글터>를 15년간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이야기로 돌아보는 유럽여행-스페인

남태우 작가는 20여 회 유럽여행 경험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낸 두 번째 여행서적 <이야기로 돌아보는 유럽여행-스페인>을 도서출판 해성에서 출간했다. 네 차례에 걸쳐 스페인인을 다녀온 남태우 작가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톨레도, 그라나다, 코르도바, 세비야, 산티아고 등에 관한 여행 경험을 그리스신화에 뿌리를 두어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특히, 여행 경험을 직접 찍은 컬러 사진과 함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 흥미를 더 돋우었다.

남태우
2019. 11. 11.
334쪽 / 20,000원



한방 명의 여기에

<특한방>은 한의학이 쉽게 이해되고 읽힐 수 있도록 2015년 부산일보사와 부산지역 주요 특화 한의원들이 뜻을 모아 출범한 디지털 한방병원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한의학'이라는 가치를 내걸며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 앞장서 온 한의학의 가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고, 엄선된 한방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심하였다. 만성피로증후군, 중풍 치료, 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치료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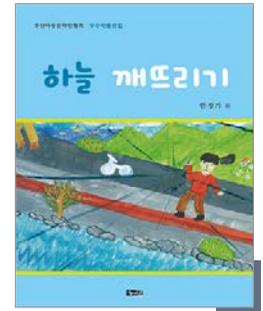
부산일보 특한방 포럼(강병령 외)
2019. 12. 10.
296쪽 / 20,000원



하늘 깨뜨리기

부산 아동문학인협회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선집을 내었다. 1984년 연간집을 처음 낸 이래로 매해 좋은 작품을 모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하늘 깨뜨리기라는 제목 아래 동시 66편, 동화 35편, 특집작품 2편, 총 103편의 소중한 작품이 모였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안부, 어린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좋은 작품을 쓰는 것 못지않게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실천하는 노력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가 있을까 고민한 결과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정기 외
2019. 12. 11.
392쪽 / 20,000원



남한테는 백점 나한테는 빵점

감천문화마을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 6명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김자미 동화작가가 할머니가 구술한 것을 녹음해 글로 옮기고 할머니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 6명의 할머니는 인생책을 시작으로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할머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마을문화 만들기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 할머니들의 '내 인생 그림책'은 구구절절한 삶을 긴긴 겨울밤 할머니가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노래한다는 점에서 가슴에 와 닿는다.

강길순
2020. 02. 15.
28쪽 / 8,000원

감천문화마을 할머니 인생책 - ①

나도 꿈이 있었어

감천문화마을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 6명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김자미 동화작가가 할머니가 구술한 것을 녹음해 글로 옮기고 할머니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 6명의 할머니는 인생책을 시작으로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할머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마을문화 만들기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 할머니들의 '내 인생 그림책'은 구구절절한 삶을 긴긴 겨울밤 할머니가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노래한다는 점에서 가슴에 와 닿는다.

곽은희
2020. 02. 15.
28쪽 / 8,000원

감천문화마을 할머니 인생책 - ②

금쪽같은 내 새끼

감천문화마을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 6명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김자미 동화작가가 할머니가 구술한 것을 녹음해 글로 옮기고 할머니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 6명의 할머니는 인생책을 시작으로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할머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마을문화 만들기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 할머니들의 '내 인생 그림책'은 구구절절한 삶을 긴긴 겨울밤 할머니가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노래한다는 점에서 가슴에 와 닿는다.

김정식
2020. 02. 15.
28쪽 / 8,000원

감천문화마을 할머니 인생책 - ③

그리운 내 형제

감천문화마을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 6명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김자미 동화작가가 할머니가 구술한 것을 녹음해 글로 옮기고 할머니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 6명의 할머니는 인생책을 시작으로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할머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마을문화 만들기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 할머니들의 '내 인생 그림책'은 구구절절한 삶을 긴긴 겨울밤 할머니가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노래한다는 점에서 가슴에 와 닿는다.

신면용
2020. 02. 15.
28쪽 / 8,000원

감천문화마을 할머니 인생책 - ④

복덩이 며느리

감천문화마을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 6명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김자미 동화작가가 할머니가 구술한 것을 녹음해 글로 옮기고 할머니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 6명의 할머니는 인생책을 시작으로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할머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마을문화 만들기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 할머니들의 '내 인생 그림책'은 구구절절한 삶을 긴긴 겨울밤 할머니가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노래한다는 점에서 가슴에 와 닿는다.

임명옥
2020. 02. 15.
28쪽 /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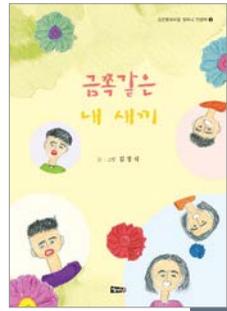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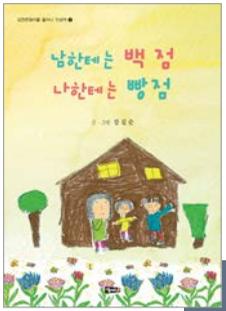
감천문화마을 할머니 인생책 - ⑤

청춘을 다 바쳐

감천문화마을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 6명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김자미 동화작가가 할머니가 구술한 것을 녹음해 글로 옮기고 할머니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 6명의 할머니는 인생책을 시작으로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할머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마을문화 만들기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 할머니들의 '내 인생 그림책'은 구구절절한 삶을 긴긴 겨울밤 할머니가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노래한다는 점에서 가슴에 와 닿는다.

황계순
2020. 02. 15.
28쪽 / 8,000원

감천문화마을 할머니 인생책 - ⑥





나는 책을 만들고 책은 나를 만들고

그동안 출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담아낸 칼럼과 부산출판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엮은 책이다. 지역출판에서 보고 느낀 점과 바라는 점을 담은 짧은 출판칼럼과 부산에서 있었던 문학, 출판 관련 이야기를 소박하게 담았다. 부산에서 다양한 형태의 출판 산업을 위해 달려온 것이 지금의 부산 출판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담았다. 문학 일반 부문 도서를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학·여행·한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약 500여 종의 책을 발간한 옛 이야기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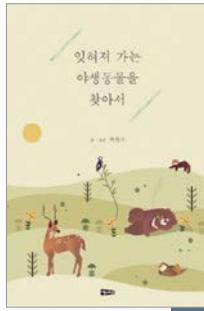
김성배
2019. 12. 20.
176쪽 / 15,000원

잊혀져 가는 야생동물을 찾아서

작가는 2014년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철새들의 생태를 기록한 『동지를 찾아 떠난 소풍』을 출간하여 많은 독자와 조류학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잊혀져 가는 야생동물을 찾아서』는 지리산을 포함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시베리아에 서식하는 시베리아 호랑이까지 23종의 동물이야기를 취재하여 수록하였다. 우리가 보았던 동물이 종이를 넘어서 다가올 것처럼 느껴지도록 한 페이지마다 컬러판으로 제작된 『잊혀져 가는 야생동물을 찾아서』는 우리나라 생태계에 관심 있는 많은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는 책이 될 것이다.

백한기
2020. 01. 31.
232쪽 / 20,000원

2019년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선정작



독립출판물을 제작 발행하기 위해 작가도 대표도 한 명인 1인 청년 출판사입니다. 첫 번째 책을 2020.01.09에 발행하였고 차기작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작할 것이고 계속해서 발행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400, 하단SK뷰 아파트 113-1301
010-2924-8203
인스타그램: aspirin_book.official
bemy.aspirin@gmail.com

난 가끔 아버를 죽이는 상상을 하곤 해

술에 취해 가장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 몰래 쓴 일기를 엮은 에세이입니다. 책에는 어떻게 하면 아버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열네 살 소녀가 쓴 일기부터 부모님의 이혼 후 전신마취 수술을 하며 병상에서 쓴 일기를 비롯해 대학에서 다섯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하며 남몰래 속앓이를 했던 흔적이 담긴 일기, 현재의 필자가 10년이 넘는 일기를 추려 에세이로 준비하는 과정 속 심경변화를 담은 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해열
2020. 01. 09.
292쪽 / 12,800원



해피북미디어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68번길 22
051-555-9684
bookskko@gmail.com

해피북미디어

해피북미디어는 책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문화, 예술 분야를 주력으로 다양한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김창욱 음악평론가의 『청중의 발견』을 시작으로 강미희 무용가의 『일상의 몸과 소통하기』까지 여섯 권의 예술문화총서를 발간하고, 자연의 가치, 공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 '만원의 행복'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호밀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294번길 24, B1F
070-7701-4675
http://homilbooks.com
homilbooks@naver.com



(주)호밀밭은 2008년 11월 12일 설립되어 2020년 현재까지 약 130여 종의 단행본을 기획 출판해 온 콘텐츠전문회사입니다.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의 책을 중심으로 기획출판하고 있으며 그동안 펴낸 거의 모든 단행본이 다양한 기관의 우수도서 및 추천도서로 선정되어 기획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단단하게, 시대와 소통하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독자들과 유쾌한 소통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중한 '무늬들' 과 오래오래 함께하길 희망하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보약과 상약

싸움의 품격

생태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 방문 경험과 도시에서 일군 텃밭 생활 등을 통해 생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린 시절 뛰어놀던 옛 농촌의 풍경을 전하는 책이다. 일일농부가 되어 경험한 생태농업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알게 하며, 우리가 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먹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일깨운다.

품격 있게 싸우면서 보람 있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인터뷰집.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치와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아야 할 삶의 도는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걸어온 삶으로 보여준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 근사한 싸움을 하는 이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된다.

김소희
2019. 11. 28.
224쪽 / 15,000원

안건모
2020. 01. 06.
248쪽 / 15,000원

201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선정도서

남국이랑 카톡하기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는데

영화와 음악으로 배우는 아메리카 문화

『남국이랑 카톡하기』에는 우리나라 남극 개척사를 포함해 남극 생활의 아지각지각 비밀, 남극의 자연환경과 동식물, 남극의 과학, 남극으로 가는 길, 국내외 극지체험시설 등 남극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당시 남극 개척에 앞장섰던 사람과의 심층 인터뷰는 남극 개척 초기의 어려운 여건과 이들이 지닌 불굴의 도전정신, 모험심, 탐험정신에 공감하게 하며 남극 개척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우리나라 근대수리조선의 1번지, 부산 영도 광장이마을. 이 마을에서 일평생을 보내신 여섯 분의 어르신들이 한국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자신들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곱디 곱던 젊은 시절은 어느새 다 지나가고 그머니 회상해 보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쉽지 않은 세월을 역척스럽게 버티온 어르신들의 삶은 그대로 산업화시대를 통과하며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던 우리들 대다수의 부모님 이야기에 닮아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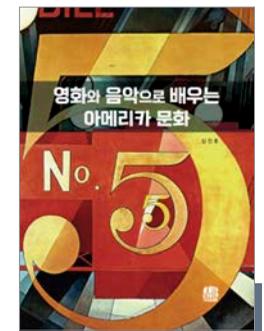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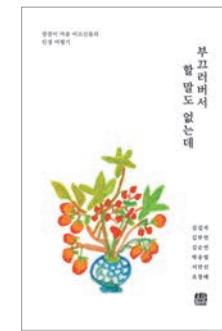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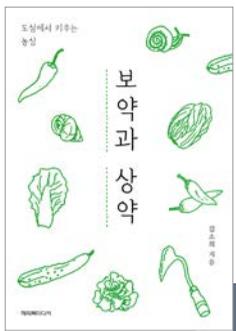
이 책은 영화 텍스트가 담겨있는 다양성과 음악이라는 장르를 근거로 미국 문화의 체험과 감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주요한 대중예술작품들을 소재로 역사와 문화, 사상, 가치관, 신념, 비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대학생들을 위한 교재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독자 스스로의 의견을 기입할 수 있는 난도 별로도 마련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편중됨 없이 학생들과 토의할 수 있도록 작품들을 엄선했다.

오상진 지음 / 박수현 사진 / 이동화 감수
2019. 02. 17.
328쪽 / 18,000원

광양이예술마을사업단
2019. 02. 22.
266쪽 / 16,000원

심진호
2019. 03. 05.
228쪽 / 13,000원

2019 우수과학도서



의열지사 박재혁 평전

1919년에 일어난 3·1혁명은 비폭력 독립시위였다. 그럼에도 우리민족은 일제의 잔혹한 탄압으로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일제는 이후 '문화통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더욱 가혹한 무단통치를 자행했다. 3·1혁명의 좌절로 한국사회는 패배의식에 뒤덮였고 어디에서도 희망의 싹을 찾기 어려웠다. 박재혁 의사는 그런 시기에 부산경찰서장 처단 의거를 통해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심지를 다시 쫓아 불을 붙였다. 이 책은 순절하게 살다가 굶고온 스물일곱 청년을 조국해방 전선에 바친 박재혁 의사의 발자취를 좇는다.

김삼웅
2019. 05. 11.
316쪽 / 18,000원



박차정

민족과 여성의 진정한 자유를 꿈꾸다

3.1운동 이후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는 상징적인 10여 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유관순 열사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박차정은 일본을 물리치며 동시에 여성을 억압하는 불평등을 없애자고 주장했던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다. 이 책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며 목숨마저 내던진 독립운동가 박차정의 발자취를 좇는다.

박미경
2019. 06. 10.
120쪽 / 12,000원

2020 청소년 북토크 지원사업 선정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참여 기념사업 선정



안희제

독립운동 비밀자극 주식회사

백산 안희제(1885~1943)는 독립운동가들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데 평생을 바친 영민하고 합리적인 독립운동가였다. 자금이 있어야 독립군을 운영하며 총, 칼 등 무기도 살 수 있었다. 일제는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정책 등 시대에 따라 정책을 달리하였고 그때마다 안희제는 교육, 무역, 언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일제에 항거했다. 민족자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이를 위해 생애를 바친 백산 안희제의 생애를 그려본다.

양경화
2019. 06. 10.
140쪽 / 12,000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참여 기념사업 선정



이중률

민족의 역사를 책임져야 한다

이중률은 일제 강점기부터 8·15광복, 4·19혁명 등 한국 사회가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맞이할 때마다 그 중심에서 서 있었다. 항일혁명운동, 단독정부 반대 투쟁, 자주적 통일 운동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조국 통일과 민족의 평화를 위해 온몸으로 맞섰다. 또한 학문과 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다수의 저작물을 남겼다. 이 책은 한평생 조국 통일과 민족 평화를 꿈꾼 산수 이중률의 생애를 추적한다.

김진애
2019. 06. 10.
144쪽 / 12,000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참여 기념사업 선정



최천택

협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

최천택(1896~1961) 선생의 일생은 숭한 고문과 고통으로 점철돼있다. 어린 시절 단팹이었던 친구 박재혁이 부산경찰서 폭파 의거를 일으킨 뒤 스물 일곱의 나이에 형무소에서 단식 사망하자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선다. 일제에 항거하는 의열투쟁과 청년운동에 참여하며 구금 및 구속된 것이 모두 54차례. 그때마다 모진 고문과 회유를 받았지만 그는 단 한번도 동지를 팔거나 자백한 적이 없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독립투사였다. 일생을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 평화통일에 바친 독립운동가 최천택의 발자취를 기록해 세상에 내놓는다.

현정란
2019. 06. 10.
148쪽 / 12,000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참여 기념사업 선정



인물로 만나는 부산 정신 세트 전 5권

도서출판 호밀밭은 (사)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와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박재혁, 박차정, 안희제, 이중률, 최천택(이상 가나다 순)까지 총 5권으로 구성된 <인물로 만나는 부산 정신> 시리즈를 기획해 선보인다.

안덕자, 박미경, 김경애, 현정란, 양경화
2019. 06. 10.
736쪽(전5권) / 60,000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참여 기념사업 선정



운동하는 여자

분야를 막론하고 일상 속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여성혐오와 성차별 관련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성의 몸'이 있다. 몸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작이자 끝이다. 운동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며 몸과 정신의 변화를 느꼈던 저자는 개인적인 충만함을 넘어 체육관 안에서 느꼈던 성차별적 구조와 분위기를, 함께 운동하는 여성들과의 사소한 경험을 <운동하는 여자>로 묶어 세상 밖에 내놓는다.

양민영
2019. 03. 08.
192쪽 / 13,800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도서

그럼에도 일본인은 원전을 선택했다

이 책은 일본에 처음 '원자의 불'이 켜진 도카이무라의 과거와 현재를 그리는데 동시에,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고노 이치로(河野一),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등 1955년 체제하 중앙 정계 중진들의 움직임과 원자력 개발을 둘러싼 재계의 의도, 언론 보도 검증 등을 통해 일본 원자력 정책의 원점을 파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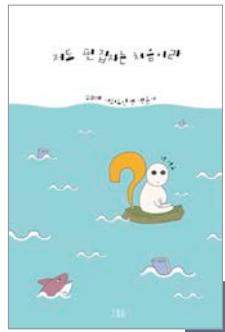
아사히신문 취재반 지음 / 김단비 옮김
2019. 07. 31.
336쪽 / 16,000원

저도 편집자는 처음이라

『저도 편집자는 처음이라』는 우연한 기회로 편집자가 된 91년생 사회초년생의 첫 직장생활 생존기다. 책은 좌충우돌 출판사 일을 하는 동안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 사회초년생, 첫 직장인이 되어 느끼는 일상의 단상도 함께한다. 비슷한 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는 주위 사회초년생들의 방향과 고민에도 주목한다. 먹고사는 문제에만 치이다 보면 자연스레 흩어지고 말았을 말과 글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떠난다.

박정오
2019. 08. 10.
244쪽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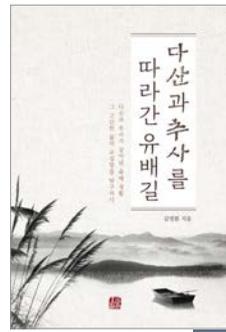
2019도개비책방 선정도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도서



다산과 추사를 따라간 유배길

조선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알려진 다산 정약용(1762~1836). 최고의 글씨체로 유명하며 학자, 예술가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추사 김정희(1786~1856). 그들은 몹시 다른 길을 걸었다. 다산은 부친을 따라 지방을 전전하였고, 서울에서 세를 사는 등 어렵게 살았던 반면 추사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당시 주류 사회의 일원이었다. 이토록 다른 둘의 삶은 유배생활로 수렴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다산과 추사의 일생 중 유배기에 한정하여 두 사람의 삶을 조명하였고, 그 처연했던 유배길 속에 스며있는 삶의 좌표를 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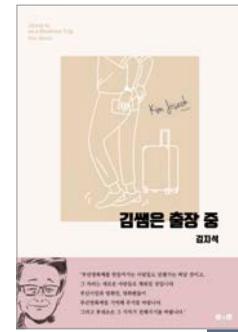
김영환
2019. 09. 07.
152쪽 / 13,800원



김쌤은 출장 중 (국문판 +영문판)

故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는 1996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창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20년 이상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수석 프로그래머 등으로 활약하며 부산국제영화제를 아시아 대표 영화제이자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한국 영화계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 책은 그가 마지막 여년 동안 남긴 출장기와 메모들을 다듬어 묶은 것이다. 각국의 영화제, 나라별 영화계의 동향, 주목할 만한 영화와 작가, 그 밖의 수많은 그만의 단상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김지석
2019. 10. 03.
228쪽(국문판), 244쪽(영문판)
/ 15,000원



바다로 간 감이

인간에게 부모를 잃고 복수를 꿈꾸고 있던 고드기(고등어)는 우울증에 걸린 용왕을 치료하기 위해 육지로 떠난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고드기는 검은 고양이 '감이'로 변하고 만다. 감이가 마주한 건 광활한 어시장의 풍경이었다. 계획이 모두 어긋나 좌절하고 있던 감이에게 하나둘씩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김문주 지음 / 김진영 그림
2019. 11. 05.
128쪽 / 13,800원

2020 창원의 책 후보



서툴다고 말해도 돼

우리는 모두 서툴다. 우선 자기 자신에게 서툴고 사랑과 외로움에 서툴다. 지혜롭게 화내는 방법을 모르고, 상처를 다스리는 법이나 표현에도 서툴며 슬픔과 용서, 선택과 거리두기에도 서툴다. 그래서 힘들게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매번 공허하고 외롭고, 어딘가 불안전한 것만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저자는 진료실에서 한 달에 평균 1,5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 나눴은 이야기들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KNN 라디오를 통해 매주 생방송으로 보내 온 청취자들의 사연과 고민을 듣고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에게 '서툴다고 말해도 돼'라며 다정한 편지를 띄운다.

권명환
2019. 12. 05.
208쪽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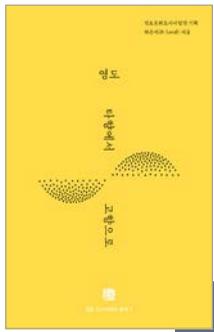
전국국어교수모임 물고방 추천도서



영도 타향에서 고향으로

개항과 일제 강점기,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품고 있는 부산은 근대의 목구멍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영도는 개항 이후 부산항의 배후 조선산업과 물류, 수산업 전진기지로 개발되면서, 그리고 피난시절과 산업화시기에 각지에서 몰려든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건설된 도시이다. <영도: 타향에서 고향으로>는 여러 사연을 안고 영도로 이주해온 8명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근대사와 개인이 만나는 단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하은지(B-Local) 지음 / 영도문화도시사업단 기획
2019. 12. 13.
172쪽 / 10,000원



음악, 좋아하세요?

인류는 출발과 더불어 음악과 함께 해왔다. 우리는 모두 '호모 무지쿠스(Homo musicus)'라 할 수 있다. 『음악, 좋아하세요?』는 클래식,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명곡들을 소개하는 한편 이 음악들과 관련된 책 그리고 일상의 단상 등이 소담하게 버무려져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어울리는 책과 음악이 각각 12개씩 담겨 있으니 1년 동안 계절별로 찾아듣고 찾아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감상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엄상준
2019. 12. 16.
424쪽 / 22,000원



할 말을 라오스에 두고 왔어

저자는 한국에 있을 때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했다. 어깨에 힘 빠질 날이 없던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를 나오게 된다. 때마침 생각지도 못했던 라오스에서 직장을 얻게 되고 낯선 나라에서 단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던 저자는 서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간다. 사위가 붙어지는 해변의 감미로운 하루, 그 여유가 저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 말을 라오스에 두고 왔어』는 서서히 라오스의 느린 시간 속에 머무르게 된 저자의 솔직담백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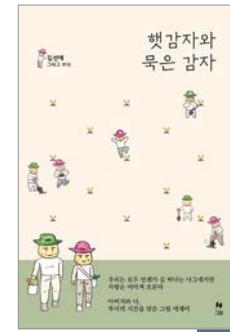
장재용
2019. 12. 23.
220쪽 / 13,800원



햇감자와 묵은 감자

저자는 자신의 얼굴이 아버지와 똑 닮았다고 이야기한다. 감자형 얼굴에 실제로 감자까지 좋아해, 가족들은 부녀를 '햇감자와 묵은 감자'라고 부른다. 햇감자라 해도 마흔이 다 되어가는 입장이지만, 저자는 일흔이 가까워진 아버지와 함께 주말마다 농장에 다니며 텃밭을 일구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햇감자와 묵은 감자』는 그 일상들을 따스한 글과 그림으로 담은 만화예세이다.

김선애
2019. 12. 23.
164쪽 / 13,800원



교실에서 못다 한 부산이야기

부산은 아름다운 바다와 풍부한 먹거리, 불거리를 가지고 있는 인구 340만의 도시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가을에는 불꽃축제와 영화제 등으로 떠들썩해지는 이 도시의 오래된 골목 사이사이에는 다양한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부산의 모든 동래부터 전포 카페거리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세월을 버텨온 사람의 이야기와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이 책 <교실에서 못다 한 부산이야기>에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산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잔뜩 담고 있다.

허정백
2019. 12. 23.
248쪽 / 13,800원





빼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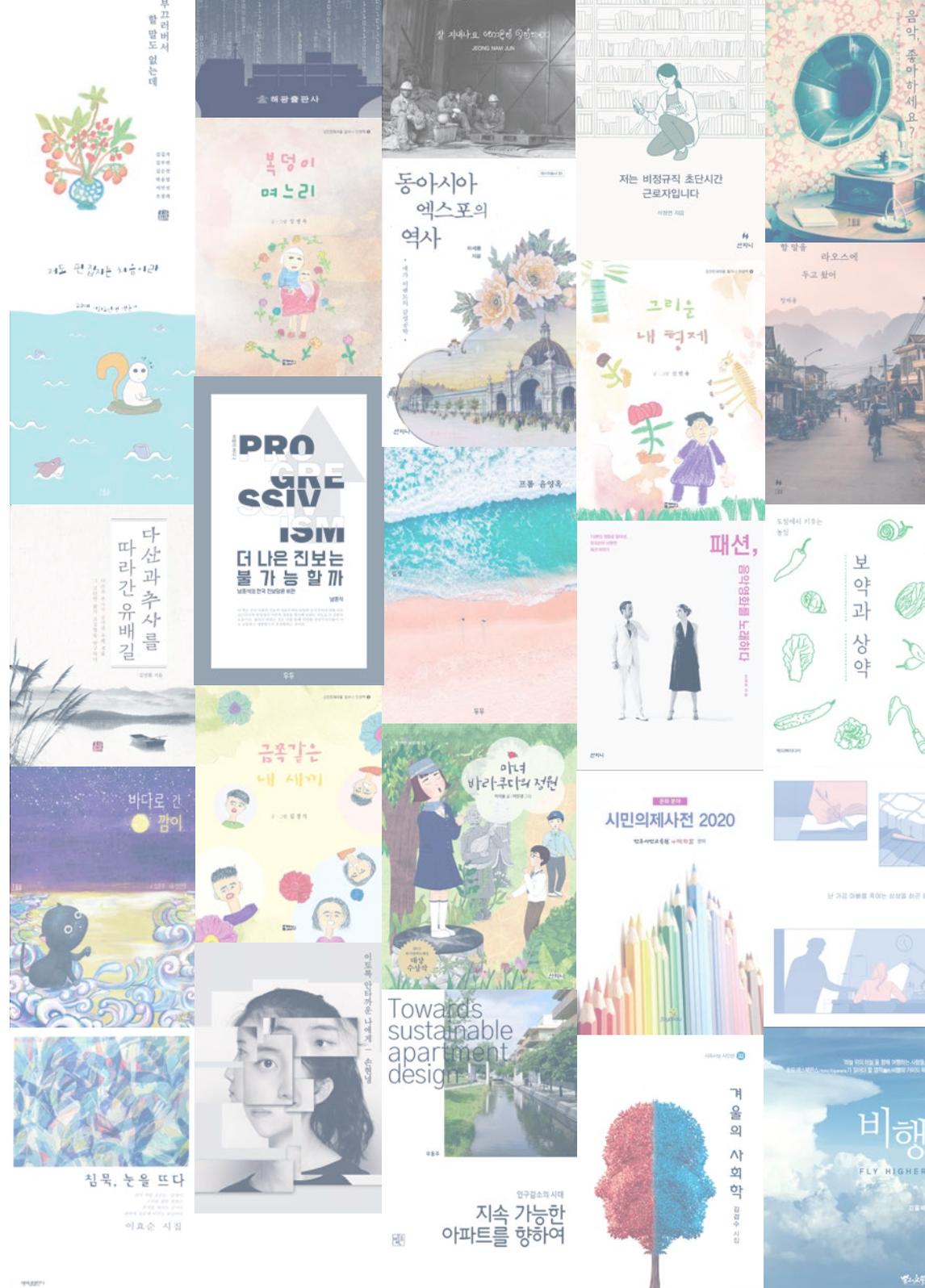
꽃 중에 꽃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일상은 자연과 가까이 있었다. 걸어서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학교를 걸어 다니고, 무거운 보따리나 손수레를 끌며 오일장을 오갔다. 광활하게 펼쳐진 산과 들은 아름다운 자연 그 자체였고, 그 사이를 친구들과 거닐었던 기억은 많은 이들에게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따스하게 남아 있다. 『빼달이』에는 새, 꽃, 해와 달, 산, 강, 바다 등 우리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자연에 관한 8개의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김용원 지음 / 김진영 그림
2020. 03. 03.
108쪽 / 12,800원

사현금(四絃琴)은 문단에서도 손꼽히는 네 명의 중견 작가 김하기, 강동수, 박향, 정인의 동인(同人) 이름이다. 사현금 동인은 문학과 현실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픽션 무크지를 발간하고 있다. 무크지 2권 『꽃 중에 꽃』에는 사현금 동인 김하기, 강동수, 박향, 정인 네 사람의 소설을 실고 있으며, 여기에 문성수, 배길남 두 명의 객원필진 소설을 더해 모두 여섯 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김하기 외 5인
2020. 03. 23.
276쪽 / 13,800원



분야별 책 찾기

문학

두두	따로 쓰게 된 방	강남주	13,800원	2019. 09. 27.
	프롬 운영옥	김정	13,800원	2019. 10. 13.
산지니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이병철	14,000원	2019. 01. 14.
	해상화열전 上/下	한방경 지음 / 김영옥 옮김	각 25,000원	2019. 04. 10.
	시로부터	최영철	14,000원	2019. 04. 25.
	일기 여행	말린 쉬위 지음 / 김창호 옮김	20,000원	2019. 05. 28.
	나뭇잎 칼	양민주	15,000원	2019. 05. 31.
	데린쿠유	안지숙	15,000원	2019. 06. 27.
	오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	이국환	15,000원	2019. 09. 10.
	팔팔 끓고 나서 4분간	정우련	15,000원	2019. 09. 30.
	폐허의 푸른빛	구모룡	25,000원	2019. 09. 30.
	저는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석정연	15,000원	2019. 12. 20.
소요-You	급식 시간	서형오	10,000원	2019. 05. 30.
시와 사상사	겨울의 사회학	김검수	9,000원	2019. 09. 30.
신생	지상에서 가장 먼 것들	김인수	10,000원	2019. 04. 05.
	미륵을 묻다	김형로	10,000원	2019. 09. 27.
	시간 이야기	황애숙	10,000원	2019. 11. 25.
	벽이 먹어버린 사내	김정희	10,000원	2019. 12. 30.
스토리팜	시간 따로 여행	이태창	13,000원	2019. 01. 05.
	영도다리 아리랑	신기용	13,000원	2019. 03. 05.
	얼마나 더 살아서	백경자	11,000원	2019. 03. 15.
	상상력과 문학의 성찰	신기용	15,000원	2019. 06. 05.
	한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의 명시	신기용	14,000원	2019. 08. 15.
	오승일 희곡집	오승일	17,000원	2019. 10. 05.
	빛이 머문 흔적	조보규	18,500원	2019. 11. 01.
	해몽	김화진	12,000원	2019. 12. 05.
	진초록에서 진녹색으로	양혜경	13,000원	2019. 12. 20.



문학

육일문화사	사랑, 황금빛에 물들다	최화웅	20,000원	2019. 04. 20.
	철 지난 나팔꽃 향연	고창표	10,000원	2019. 05. 16.
	가을 하모니카	고창희	10,000원	2019. 05. 21.
	청옥당	정의록	12,000원	2019. 08. 22.
	해신이야기	황선영	10,000원	2019. 10. 31.
	그 여자의 전봇대	김수화	12,000원	2019. 11. 15.
	어머니	구자훈	14,000원	2019. 12. 05.
	그리움이 시가 된다	심현수	10,000원	2019. 12. 16.
	반환점	정관출	14,000원	2019. 12. 26.
	제대로 산다는 게	문희숙	10,000원	2020. 02. 14.
인디페이퍼	완벽한 생존	김주영	13,000원	2019. 06. 28.
전망	걷는 자의 대지 2	하창수	35,000원	2019. 05. 10.
	뒤로 걷는 저녁	정의태	10,000원	2019. 05. 30.
	참, 고마운 만남	드레문학 동인	12,000원	2019. 07. 01.
	팔호 안의 고백	이효애	10,000원	2019. 07. 05.
	팀장 이유나	김의원	14,000원	2019. 07. 10.
	빙점 아래 피는 꽃	양윤형	12,000원	2019. 07. 20.
	하늘은 살아있다	이정호	10,000원	2019. 07. 25.
	흘날리는 씨앗으로	류옥진	10,000원	2019. 07. 31.
	농부와 고양이	하봉환, 강경숙	16,500원	2019. 08. 20.
	시간 감각	최순혜	10,000원	2019. 08. 30.
	8병동의 똥방	백영희	10,000원	2019. 10. 15.
	그리운 이의 집은 출렁이는 신호등 너머	최수지	10,000원	2019. 10. 18.
	바람이 되는 이유	이성근	12,000원	2019. 10. 26.
	몽상의 저녁	김지은	10,000원	2019. 11. 12.
	자정의 바다	양선빈	10,000원	2019. 11. 14.
오후 네 시,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정문숙	14,000원	2019. 11. 15.	
길의 안부를 묻다	백년어서원	14,000원	2019. 11. 15.	
탈진-무크지 째 vol.7	우은진 외	14,000원	2019. 12. 17.	
하무리 제7집	정영환 외	10,000원	2019. 12. 20.	

분야별 책 찾기

문학

전망	저녁에 기대어	김희진	10,000원	2019. 12. 25.	
	소금꽃	이윤정	10,000원	2019. 12. 27.	
제제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	손현녕	12,000원	2019. 08. 23.	
	이토록 안타까운 나에게 그림책	손현녕 지음 / 정진주 그림	16,000원	2020. 04.	
책펴냄열린시	랍비, 저수지에 있다	조정어	10,000원	2019. 01. 22.	
	사랑, 너를 가둔다	김정숙	10,000원	2019. 05. 13.	
	시간은 디자인된 삶을 재단한다	명은애	10,000원	2019. 05. 15.	
	침묵, 눈을 뜨다	이효순	10,000원	2019. 07. 25.	
	오늘을 경매하다	신진련	10,000원	2019. 08. 20.	
	그 여자의 섬	유미화	10,000원	2019. 08. 22.	
	쑥대밭머리	강영환	10,000원	2019. 09. 05.	
	서로는 짝사랑	오원량	10,000원	2019. 10. 31.	
	기로모질	김필규	15,000원	2019. 11. 02.	
	시간을 택배 받다	이호원	10,000원	2019. 11. 04.	
	아주 오래된 가방	성장경	10,000원	2019. 11. 20.	
	물결무늬 종소리	그림나무 6집	15,000원	2019. 11. 25.	
	수레에 길을 싣고	김주현	10,000원	2019. 12. 05.	
	내 마음속 수채화	조현자	15,000원	2020. 02. 20.	
	숲속의 어부	강영환	10,000원	2020. 05. 04.	
	한국인	환상의 행성 스강나하르	김영찬	35,000원	2019. 09. 10.
		동지(冬至)	김영찬	15,000원	2019. 09. 10.
정감이 묻어나면		윤평원	12,000원	2019. 10. 30.	
우리들의 포장마차		김영찬	15,000원	2019. 11. 20.	
해성	시골버스	구용	12,000원	2019. 02. 01.	
	감나무집 동백꽃	김문홍	15,000원	2019. 08. 05.	
	숫돌에 칼을 갈며	주정어	15,000원	2019. 11. 01.	
	나는 책을 만들고 책은 나를 만들고	김성배	15,000원	2019. 12. 20.	
	남한테는 백점 나한테는 빵점	강길순	8,000원	2020. 02. 15.	



문학

	나도 꿈이 있었어	곽은희	8,000원	2020. 02. 15.
	금쪽같은 내 새끼	김정식	8,000원	2020. 02. 15.
	그리운 내 형제	신명용	8,000원	2020. 02. 15.
	복덩이 며느리	임명옥	8,000원	2020. 02. 15.
	청춘을 다 바쳐	황계순	8,000원	2020. 02. 15.
해열	난 가끔 아빠를 죽이는 상상을 하곤 해	해열	12,800원	2020. 01. 09.
해피북미디어	보약과 상약	김소희	15,000원	2019. 11. 28.
호밀밭	운동하는 여자	양민영	13,800원	2019. 03. 08.
	저도 편집자는 처음이라	박정오	13,800원	2019. 08. 10.
	김쌈은 출장 중 (국문판+영문판)	김지석	15,000원	2019. 10. 03.
	바다로 간 낚미	김문주 지음 / 김진영 그림	13,800원	2019. 11. 05.
	할 말을 라오스에 두고 왔어	장재용	13,800원	2019. 12. 23.
	햇감자와 묵은 감자	김선애	13,800원	2019. 12. 23.
	꽃 중에 꽃	김하기 외 5인	13,800원	2020. 03. 23.
낭이의아용	요기 올래? 축제의 영도다리	김나영	7,000원	2019. 03. 26.
	수 수영, 머물다	김나영 외	5,000원	2020. 04. 30.
두두	더 나은 진보는 불가능할까	남종석	15,000원	2019. 05. 25.
산지니	홍콩 산책	류영하	15,000원	2019. 01. 15.
	동아시아 엑스포의 역사	하세봉	35,000원	2019. 02. 11.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정상천	16,000원	2019. 02. 28.
	소비에트 러시아의 신체문화와 스포츠	박원용	25,000원	2019. 02. 28.

인문교양

분야별 책 찾기

인문교양

산지니	해양사의 명장면	김문기 외	20,000원	2019. 07. 25.
	루카치가 읽은 솔제니친 게오르크 루카치 지음 / 김경식 옮김		18,000원	2019. 07. 26.
	패션, 음악영화를 노래하다	진경옥	20,000원	2019. 12. 24.
	고종, 근대 지식을 읽다	윤지양	25,000원	2020. 02. 11.
	중국문화요의	량수밍 지음 / 강중기 옮김	13,000원	2020. 03. 25.
신생	누가 방안의 코끼리를 꺼낼까	신승철	15,000원	2019. 03. 27.
	생태계의 도표	신승철	18,000원	2020. 02. 17.
비온후	지속 가능한 아파트를 향하여	우동주	15,000원	2019. 10. 31.
빨간집	정남준 사진집 <잘 지내나요>	정남준	22,000원	2019. 06. 20.
육일문화사	90까지 배낭 메고 길 위에 서리라	김현숙	20,000원	2019. 02. 21.
	시사 주간지 TIME 읽는 법	안수용, 안정은	20,000원	2019. 03. 13.
	아침을 깨우는 소리 2	혜각 스님	12,000원	2019. 03. 14.
	해외관광 1번지 동남아시아 여행	강중구	18,000원	2019. 06. 30.
전망	삶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	정해경	15,000원	2019. 03. 20.
한국인	비행(飛行)	강을배	12,000원	2019. 04. 20.
	좋은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석재	12,000원	2019. 07. 10.
해성	이야기로 돌아보는 유럽여행-스페인	남태우	20,000원	2019. 11. 11.
	한방 명의 여기에	부산일보 특한방 포럼(강병령 외)	20,000원	2019. 12. 10.
	잊혀져 가는 야생동물들 찾아서	백한기	20,000원	2020. 01. 31.
해피북미디어	싸움의 품격	안건모	15,000원	2020. 01. 06.
호밀밭	남극이랑 카톡하기	오상진 지음 / 박수현 사진 / 이동화 감수	18,000원	2019. 02. 17.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는데	깡깡이예술마을사업단	16,000원	2019. 02. 22.
	영화와 음악으로 배우는 아메리카 문화	심진호	13,000원	2019. 03. 05.



인문교양

의열지사 박재혁 평전	김삼웅	18,000원	2019. 05. 11.
박차정: 민족과 여성의 진정한 자유를 꿈꾸다	박미경	12,000원	2019. 06. 10.
안희제: 독립운동 비밀자금 주식회사	양경화	12,000원	2019. 06. 10.
이종률: 민족의 역사를 책임져야 한다	김진애	12,000원	2019. 06. 10.
최천택: 협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	현정란	12,000원	2019. 06. 10.
인물로 만나는 부산정신 세트	안덕자 외 4인	60,000원	2019. 06. 10.
다산과 추사를 따라간 유배길	김영환	13,800원	2019. 09. 07.
서툴다고 말해도 돼	권명환	13,800원	2019. 12. 05.
영도: 타향에서 고향으로	하은지(B-Local) 지음 / 영도문화도시사업단 기획	10,000원	2019. 12. 13.
음악, 좋아하세요?	엄상준	22,000원	2019. 12. 16.
교실에서 못다 한 부산이야기	허정백	13,800원	2019. 12. 23.

사회과학

너나드리	그들만의 평양	강동완	29,000원	2019. 04. 15.
	북한담배: 프로파간다와 브랜드의 변주곡	강동완	29,000원	2019. 09. 30.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 '총성의 외화별'이라 불리는 북한노동자	강동완	29,000원	2019. 12. 22.

산지니	그림 슬리퍼	크리스틴 펠리섹 지음 / 이나경 옮김	18,000원	2019. 06. 19.
	닥터 아나키스트	정영인	15,000원	2019. 08. 05.
	다시 시월 1979	10·16부마항쟁연구소	18,000원	2019. 10. 15.
	자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	임성원	20,000원	2019. 11. 08.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정광민	25,000원	2020. 04. 13.

소요-You	시민의제사전 2020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14,000원	2020. 02. 06.
	건다가 근대를 생각하다	김동규, 홍순연	15,000원	2020. 03. 02.

호밀밭	그럼에도 일본인은 원전을 선택했다	아사히신문 취재반 지음 / 김단비 옮김	16,000원	2019. 07. 31.
-----	--------------------	-----------------------	---------	---------------

분야별 책 찾기

자연과학

해광출판사	오일탱커	채종주	27,000원	2019. 02. 27.
	해사사이버 보안의 이해	최성민, 박재홍	22,000원	2019. 09. 18.
	선박내역기관 명칭도	해광도서편찬회	26,000원	2020. 01. 15.
	알기쉬운 선박 전기 전자	해광도서편찬회	23,000원	2020. 04. 15.

유·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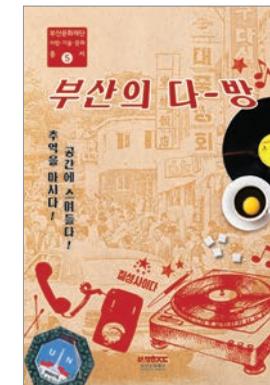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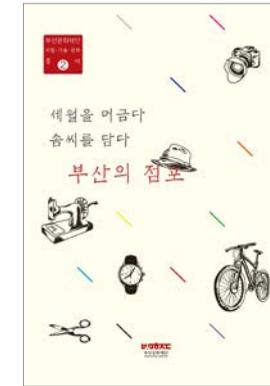
산지니	마녀 바라쿠다의 정원	이석용	13,000원	2020. 03. 25.
해성	하늘 깨뜨리기	한정기 외	20,000원	2019. 12. 11.
호밀밭	배달이	김용원 지음 / 김진영 그림	12,800원	2020. 03. 03.

부산문화재단 출판시리즈 안내



(재)부산문화재단에서는 부산에 숨어 있는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구석구석에 잠들어 있는 이야기거리를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시리즈>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부산다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로 소통하기 위해 지역의 가치있는 문화콘텐츠를 간행물로 발간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의 (재)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051-745-7225





발행인 강동수

발행일 2020.06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기획 (재)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문의 T.051.745-7282 F.051.743-3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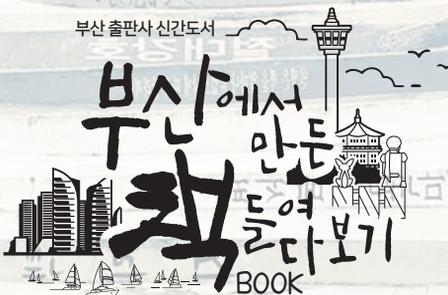
홈페이지 www.bscf.or.kr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5. 7282 / F. 051. 743. 3553
www.bscf.or.kr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 등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부산출판사 신간도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5. 7282 / F. 051. 743. 3553 www.bscf.or.kr